

- 1.종교다원주의 배격
1.동성애 반대
1.차별금지법 반대
1.자유민주주의 수호

제1165호
1월 30일
2021년
토요일

牧羊新聞

총회 상회비 계좌번호 안내

■ 국민은행
061701-04-176877

■ 농협
301-0153-7296-01

■ 예금주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 문의
02)2675-5181~3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 서울 다-07857 주관

www.mokyangnews.com(목양신문 지면보기 : www.aogk.org) 이메일 : mok2677@naver.com

전화 : 02)2677-9935~7 FAX : 0504)027-0897

제68차 총회 제20회 임원회

‘감염법’ 교회폐쇄는 방역독재

철저한 방역하에 드리는 대면예배 허용되어야한다



신재영 목사
예하성 총회장
새김교회 담임

교단 총회(총회장 신재영 목사) 제68차 총회 제20회 임원회가 지난 1월 28일(화) 오전 11시 다중영상회의로 진행되었다. 코로나19의 전 세계적확산으로 세계 각국이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적지 않게 나타남으로 생활 속 거리두기를 통해 확진자 증가를 억제하기 위하여 통합 동영상 회의에서 각종 보고와 회부를 처리하고 주요내용 등을 결의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총회장 신재영 목사의 인도로 부총회장 정익섭 목사의 기도, 총회장 신재영 목사의 설교, 코로나 위기 극복과 예배회복을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합심기도, 회계 김건수 목사의 기도, 서기 정영진 목사의 축도 순으로 이어졌다. 총회장 신재영 목사는 신 17:18-20 말씀을 본문으로 한 설교를 통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겸손히 말씀대로의 삶을 행해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책

입져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강조하고 임원들을 축복했다. 곧바로 이어진 임원회는 총회장 신재영 목사 주재로 서기 정영진 목사의 회원점명 의장 신재영 목사의 개회선언 후 총무보고사항이 이어졌다. 총무 이경진 목사는 보고사항으로 코로나19 감염 예방 차원에서 각종 총회 일정과 행사 등이 취소 또는 연기되고 있는 가운데 감염병의 추이를 살펴가면서 총회 일정을 신년도에 준비하고 있음을 보고했다.

이어 재무 한순남 목사의 수입보고, 회계 김건수 목사의 지출보고 순으로 진행되었다. 결의 및 안전도의 사항으로 교회가입 청원, 교역자가입 청원, 교역자 전출임 청원, 교회주소변경 보고 등의 내용이 결의 및 보고되었다.

기타사항으로 전북지교회(회장 유관영 목사) 익산신중교회(담임 정성열 목사) 보일터실에 있는 화목 보일터에서 화재가 발생해 어려움을 겪고 있어 화재 복구에 미력하나마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2021년도 목사고시가 2월 1일(월), 2일(화) 실시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으로 인하여 연기



를 결정했다.

임원회에서는 방역을 빌미로 철저히 방역을 준수하는 교회들까지 대면예배를 금지하며 심지어 교회폐쇄를 명하는 정부의 종교의 자유를 짓밟는 행태를 비난하고 예배회복을 통한 신앙회복을 위해 탄압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좌편향 및 동성애 논란에 문제점 지적

정치사상 주입 위한 교육의 장 되어서는 안 될 것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종합계획 반발 전국교사연합, 전국교육회복교사연합

올바른 교육을 위한 전국교사연합(올교련)과 전국교육회복교사연합(회커버)은 지난 1월 19일(화)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시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의 좌편향 및 동성애 논란에 문제점을 지적하며 올바른 개정을 촉구했다. 학생인권종합계획의 좌편향 및 동성애 논란에 서울교원단체들이 개정을 촉구하고 나선데 이어 학부모 단체들과 교사들까지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전국교육회복교사연합(회커버) 육진경 대표는 “전 세계적으로 에이즈 신규 감염 수치가 감소하고 있지만 한국은 반대로 증가하며 동성애로 인한 청소년의 에이즈 감염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성소수자 학생 인권교육강화는 청소년들의 에이즈 감염 확산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육 대표는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서울시교육청에서 성소수자 학생의 인권교육 강화를 위해 선행해야 할 건강상 문제에 대한 언급 및 성적지향 혼란의 원인을 생각해 보는 교육의 기회를 주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성인권 시민 조사관이 동성애의 보건적 해해를 교육적으로 언급한 것에 논란을 삼고 혐오표현으로 문제 제기한다면 어느 교사가 학생들에게 올바른 인권교육을 할 수 있겠는가. 성인권 시민 조사관이 동성애 보건적 해해를 언급하는 교사를 억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성평등 용어의 문제점도 제기하며 “성평등은 제대로 이해될 필요가 반영된 개념으로 급진적이며 자신

이 성을 결정할 수 있는 성주류와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서울시 교육을 대표하는 공교육기관에서 헌법과 법률이 제시하지 않은 별도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노동인권’은 특정 단체의 정치사상 주입 도구가 될 수 있기에 배제해야 한다. 학교현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로 다양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며 “학교 노동교육의 확대 및 활성화와 계획이 특정 단체의 정치사상 주입을 위한 교육의 장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인권종합계획 결사 반대 참인권청년연대도 동성애, 좌편향 주입 우려 표명 참인권청년연대(대표 김진규)는 지난 1월 19일(화) 서울시교육청 정부 앞에서 서울시교육청이 추진 중인 학생인권종합계획에 대해 동성애 조장과 편향된 좌익사상을 주입할 여지가 있는 부분을 지적하며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참인권청년연대는 성명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발표한 학생인권종합계획은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추진과제에는 소수자 학생 권리보호, 차별 방지를 위한 가이드 보급, 학교운영위원회 학생 참여, 개성 및 사생활의 자유 등 학생인권 인척,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및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학교노동인권교육의 확대 및 활성화 등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동성애를 옹호하는 젠더이데올로기와 좌익사상이 내포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아울러 “성소수자 학생의 인권교육 강화를 위해 성인식 개선 및 성평등 교육 콘텐츠들 개발, 보급하고 성인권 교육 실시를 통한 성차별 및 성별 고정관념을

해소하겠다고 하는데, 동성애는 엄연한 질병이다. 질병에 걸린 학생에게 치료를 지원하지는 못 할 망정, 다른 학생들에게 젠더 이데올로기 사상을 주입하여 성인식을 개선하겠다는 것은 도대체 누구의 머릿속에서 나온 발상인지 모르겠다. 모든 학생들의 정신을 비정상화 시키려는 것인거니 이것은 양성평등의 본질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닌, 비정상적인 변태적 성 욕구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한탄하며 말했다.

이어 “이들(한반 및 기본권을 얘기하지 않고, 실제로는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의 체제, 한반정신, 국가정통성을 부정한다. 평화통일을 이야기 하지만, 실제로는 북한 정권을 찬양한다. 보편적 복지, 기본소득을 이야기 하면서, 자유 시장경제체제를 부정한다. 역사 바로알기를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역사 왜곡을 조장한다. 노동과 인권을 얘기하면서 실제로는 노조 조직 방법 및 차별 해체 활동 전략에 대한 교육을 가르친다. 성 평등을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동성애, 트랜스젠더를 옹호하는 젠더이데올로기를 가르친다. 시민권을 얘기하면서 실제로는 권력 여당과 우호 세력에 대한 편파적 옹호 교육을 하고 사전선거에 운동에 준하는 자질을 보인다.

평화통일을 얘기하면서 실제로는 김씨 3대 세습 정권을 옹호하고, 중국 내 북한 탈북민이나 정치수용소에 갇힌 동포들의 인권은 언급하지 않는다. 글로벌 시민의식을 얘기하면서 반미 감정을 조성한다. 이처럼 민주시민교육은 수많은 모순과 거짓이 숨겨진 악한 교육이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민주시민교육은 좌편향 이념교육의 또 다른 이름인데, 이념교육 제도화의 최종 단계라고 볼 수 있다. 법으로 시행되면,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할 제도의 장치가 없기 때문에 견제도 불가능해진다. 이 교육에 관련된 정책으로 인해, 민주시민교육위원회나 민주시민교육원, 민주시민교육센터 등 어용 교육기관의 등장도 불가피해지는데, 이는 북한이나 중국의 인민교육 시스템과 굉장히 유사점을 보인다. 이 시스템으로 관련 시민단체와 진정된 인사들의 막이 생대계가 구축될 것이라는 것은 볼 보듯 뻔하다”고 강한 우려를 표했다.



‘나는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조용묵 목사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약 1:2~4)

성도에게는 시험에 들지 않는 것이 더 할 수 없이 중대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 당할 때 도와주시지만 시험을 면제해 주시지는 않습니다. 예수님도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당하셨고 사람들에게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시험에 들지는 않으셨습니다. 시험의 종류와 시험을 이기는 비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시험의 종류를 살펴보겠습니다.

고난, 핍박, 유혹, 장애와 곤란, 희생이라는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이 있고, 사탄의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의도로만 성도들을 시험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를 알기 위해서, 사람이 때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영혼의 임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시험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에서 불순물을 제거하여 온전케 하기 위해서, 우리 믿음을 검증하여서 상을 주시려고 시험하십니다.

그러나 사탄은 악한 의도로만 사람을 시험합니다. 신자들을 시험하여 신앙생활이 침체에 빠지게 하고 세속에 물들게 하며 이단에 끌리게 합니다. 핍박과 환난이라는 수단을 통해, 유혹이라는 수단을 통해 시험에 빠지게 합니다. 교회에서 대인관계가 미숙하고 성격이 원만치 못한 사람들로 인해 상처 입는 신자들을 시험에 빠지도록 중동합니다. 교회에 나가려고 작정하는 사람이나, 아직 거듭나지는 않았지만 교회에 다니고 있는 사람이 성직자 혹은 교인들에 관한 좋지 못한 일들을 보고 듣게 하여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생각을 버리게 하고 교회를 떠나게 합니다.

다음은, 여러 가지 시험에 대처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람들을 바라보는 눈을 돌려 예수 그리스도만을 앙망해야 합니다. 그러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구속하여 주신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울고 웃으며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화해와 희열을 맛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기약된 금세와 내세에 걸친 다행 언할 수 없는 복과 기업을 깨닫고 행복감을 느껴야 합니다. 둘째는, 인내해야 합니다. (약 1:12) 셋째는, 기쁘게 여겨야 합니다. (약 1:2~4) 넷째는, 기도해야 합니다. (막 6:13) 다섯째는, 탐심을 버려야 합니다. (딤후 6:910) 여섯째는, 시험하는 사탄을 말씀으로 대적하고 물리쳐야 합니다. (약 4:7)

일곱째는, 하나님 섬기는 일을 삶의 최고의 목표와 목적으로 삼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 섬기는 일만이 삶의 목적인 사람, 어떠한 처지에 놓일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에 변함이 없는 사람에게 다가오는 시험은 해를 끼치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재료가 되어 버립니다. 여덟째는, 시험을 견디고 이기므로 얻게 되는 유익을 생각해야 합니다. 시험은 우리의 신앙을 순수하게 만들고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신앙의 진실성 여부를 드러나게 하고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을 더욱 깊고 풍성하게 경험하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삼가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도의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벧전 1:67) 반드시 삼가할 말씀이 또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전 10:13) “자기의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히 2:18)

여러분은 시험당할 때 외롭지 않습니다. 시험당할 때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도움을 구하십시오. 여러분은 “나는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라고 언제나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와진리교회)

‘교회에 대한 비대면 예배 원칙’ 헌법소원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 “확신가지고 헌법 소원 한 것”

헌 정부의 대면예배 전면금지에 대해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와 평등권 침해에 대해 헌법소원이 지난 1월 12일 제기됐다.

지난 3일 발령한 부산광역시 사회적거리 두기 행정명령 연장 및 변경 고시 가운데 ‘종교활동 제한’ 중 ‘교회의 비대면 예배 원칙’ 부분이 위헌임을 확인하기 위한 헌법소원이다.

부산광역시의 고지가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해 청구인(손현보, 임영분 목사)들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지, 다른 시설 등에 대한 조치와 비교해 평등원칙을 위배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것이다.

합계 풀이하면 식당, 뷔페 등 음식물물을 섭취하는 장소는 마스크 착용이 부분적으로 불가능하고 목욕탕, 놀이공원 백화점, 대형마트 등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기 어려운 장소들이다. 이와 함께 결혼식장, 장례식장, 영화관, 공연장 등 ‘상시’ 다중이 이용하는 곳은 종교시설보다 방역이 취약한 장소인데, 이런 시설운영은 중지하는 조치는 취하지 않으면서 교회 등 종교시설과 관련해서만 실질적으로 운영중지 조치를 취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특히 공부나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는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아니한 것은 과학적 합리성을 결여한 조치라고 기술했다.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은 “강력한 방역조치가 필요하다면 모든 시설이나 활동에 강력한 방역수칙을 적용해야 그 효력을 극대화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방역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반감될 수 있다”며 “진정으로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 차단이 목적이라면 종교의 자



유를 제한하는 방역대책과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방역대책은 적어도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의 방역 규제는 엄터리 조치라는 확신을 가지고 헌법 소원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교회에 대해서는 영상 송출을 위한 20명의 행정요원만 허용하고 있어 영상 송출의 목적이 아니라면 어떠한 유형의 예배도 드릴 수 없고, 소모임·식사제공·수련회 등의 모든 대면 모임과 행사를 할 수 없다.

한기총·한교연 대표회장 신년 간담회

연합기관 통합문제 등 교계 현안 폭넓게 의견 교환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직무대행) 김현성 변호사는 지난 1월 12일(화) 한기총 사무실에서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 송태섭 목사님과 간담회를 가졌다.

양 기관 대표회장 간 상견례 차원에서 이루어진 이날 간담회에서는 한기총과 한교연 등 연합기관 통합문제, 예배금지, 교회폐쇄, 차별금지법 문제 등 교계 현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예배금지나 교회폐쇄 등 교회에 대한 정부의 방역조치와 관련해, 방역당국의 방역방지에 협조하면서도 연합기관을 통해 방역수위를 세분화, 구체화하고 조율할 필요성이 있다는데 공감했다.

연합기관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도 정치 참여 목적이 아닌 복음 전파가 근본 목적임을 확인하고, 대형 교단이나 교회 위주의 활동은 물론 더 나아가 모든 교단과 교회가 다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보다 조화로운 활동방향이



모색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김현성 대표회장(직무대행)은 “2021년 올해가 한기총은 물론 한국기독교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한해가 될 것”이라면서, “적법하

게 신임 대표회장을 선출해 한기총이 교계는 물론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정상화할 수 있도록 주위에서도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위장된 차별금지법반대, 코로나 극복 기도

2021년 한국교회총연합 신년하례회

2021년 한기총 신년하례회가 코로나19 거리두기에 맞춰 상임회장단 교단을 중심으로 참석을 제한하여 지난 1월 19일(화) 오후 2시,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그레이스홀에서 열렸다.

1부는 분회 대표회장 이철 감독(기감 감독회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기성 총회장 한기재 목사의 기도, 예정진리 총회장 홍정자 목사의 성경봉독에 이어 분회 대표회장 장종현 목사(예정백서 총회장) 설교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연합하는 한국교회총연합이 되어 활동한 이 땅에 성령의 비림을 일으켜 한국교회를 살리자”라고 말씀을 전했다. 기성 총회장 박문수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하례 인사를 나눔으로 시작한 2부는 대표회장 소강석 목사(예정합동 총회장)의 신년사로 시작했다. 소 목사는 “우리 마음을 어지럽히는 분노와 증오의 부유물을 걷어내며, 다시 순결하고 정화된 영혼 위에 사도행전적 신앙을 회복하자. 결국, 코로나19 이후 다시



새롭게 부흥할 한국교회를 바라보며, 성령이 역동케하시는 성경적 원형교회를 세우기자”고 전했다. 이어서 예정통합 총회장 신정호 목사의 인사가 있었다.

그 후, 9명의 상임회장이 나라와 민족, 교회와 연합, 극단으로 치닫는 사회, 코로나19의 극복과 교회의 역할, 통일시대를 열어가는데 한반도와 북을전파 그리고 한기총의 지도자와 2021년 사임을 위해 기도했으며 예정 합선 총회장 박병화 목사의 폐회기도로 행사를 마쳤다.

신년하례회에 참석한 모든 이들은 한마음이 되어 “정규예배에서 방역수칙을 철저히

하게 준수하고, 식사와 통제되지 않는 작은 모임 등을 철저하게 금지함으로써 어렵게 되찾은 ‘대연 현장예배’를 계속할 수 있게 노력하자고 다짐하였다.

함께 진행된 1월 한국교회기도회에서는 이상민 의원이 준비 중인 ‘행동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을 심도 있게 분석한 자료와 한기총의 입장을 담은 내용을 자료로 배포했으며 ‘이상민 의원법안’은 ‘위장된 차별금지법’으로서 우리 헌법의 기본인 자유민주주의의 원리에 반할 뿐 아니라 한자어 균형을 잃은 과잉입법이기때 강력히 반대한다. 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장총, 신년하례식 대표회장·상임회장 취임

대표회장 김종준 목사, 상임회장 한영훈 목사

사단법인 한기총한국교회총연합회는 2021년 신년하례식과 대표회장 김종준목사, 상임회장 한영훈목사 취임식을 20일(수), 한국교회 100주년기념관 글로벌홀(대강당)에서 드렸다.

상임회장 한영훈 목사의 인도로 예배가 진행되었으며 분회 공동회장이며 한국교회총연합회 대표회장인 소강석 목사는(예정 합동 총회장) 삼하 23:3-5 말씀을 본문으로 ‘정교교회에 일어나라’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였다.

예배기도는 분회 공동회장 이상재 목사(대신 총회장), 성경봉독은 공동회장 김희진 목사(씨어선 총회장), 설교 후 합심기도는 박병화 목사(합선 총회장), 축도는 증경대표회장 김수을 목사가 맡았다.

제2부 신년인사는 서기 김종명 목사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회장단의 신년 케익 커팅으로 시작하여, 참석자들의 신년인사와 대표



회장 김종준 목사의 신년사에 이어 증경대표회장 윤희구 목사, 증경대표회장 황수원 목사, 증경대표회장 송태섭 목사, 공동회장 안성삼 목사의 새해축하 순으로 진행되었다.

대표회장 김종준 목사는 신년사를 통해 새해를 맞아 창조주 하나님의 위로와 인자와 긍휼과 지혜와 은혜가 코로나19의 팬데믹으로 고생하는 지구촌 이웃과 예배의 자유를 빼

앗긴 한국교회와 북한 동포들 위에 임하시기를 기원했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무엇과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권리이자 의무임을 강조했다. 또한 교회의 미래를 이끌어나갈 다음세대 교육을 위해 온 교회가 기도하며 물심양면으로 투자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둘 것을 권했으며 교회당에 모이고 예배할 수 없을 지라도 다음세대들이 받아들이기 쉬운 익숙한 도구를 활용하고 다양한 방법을 개발하여 복음의 진실성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

제3부 취임식은 총무 황연식 목사의 사회로 내외빈을 소개함으로 시작하여, 증경대표회장 박기수 목사가 대표회장 김종준 목사에게 대표회장 취임패를 전달하고, 한영훈 목사가 상임회장 취임패를 전달하였다. 대표회장 김종준 목사가 취임인사를 하고 제38회 기를 함께 설립 인원과 상임위원장과 특별위원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한국기독교영풍회 대표회장 이·취임 감사예배

‘도우심을 구하고 이루실 일에 수종들자’

제38대 한국기독교영풍회 이·취임식 및 신년하례예배가 지난 1월 18일(월) 인천 웨스턴그레이트호텔 대연회장에서 열려 참석자들은 귀한 만남에 감사하고 서로의 안부를 묻는 등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신임 대표회장 이규봉 목사는 “코로나19와 폭설이란 어려움을 뚫고 함께 해주신 증경회장 및 임역원 특히 취임준비위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전한다”며 지난 해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것이 멈춰버린 모습을 보았고 울어도 밝은 전망은 아니지만 우리의 길과

지역을 중단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목사는 이어 어려운 상황에서 취임을 준비한 준비위원장 장상길 목사, 진행위원장 장영만 목사, 사무총장 우종희 목사, 진행총무 김진목 목사, 진행서기 최선 목사, 진행회계 조용재 목사의 노고에 거듭 감사를 전했다.

1부 예배는 권영만 목사의 사회로 영풍회 기 입장을 필두로 서태성 목사의 기도, 박병철 목사의 “우리 한국교회에 성령의 비림이 불게 하자” 구호제창, 최선 목사의 성경봉독,

노영희 선교사의 특송이 있었다.

증경회장 김수을 목사는 “그렇게 하지 아니 하실지라도”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느 부강배살임을 향한 믿음의 세사람의 선편은 어떤 상황, 어떤 위기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고난 중에도우시는 주님만을 의지했던 것을 상기하며 한국교회와 모든 목회자, 성도들이 이런 믿음의 각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봉헌기도 조용재 목사, 김창호 목사의 봉헌찬송에 이어 2부 이취임식에는 직전회장 이상배 목사의 이임사, 상호 공로패 취임패 증정, 각 단체에서 수여하는 축하패 증정과 회장단 임원 임명패를 수여했다.

증경회장 이성열, 오범열, 이기만, 한영기 목사의 권면, 격려사, 축사 후에 사무총장 우종희 목사의 내빈소개 후 김기성 목사의 축도로 마무리했다.

신년하례회에서는 증경회장 조예환 신석, 정성업 목사의 격려사, 축사 순서와 함께 상견례와 오찬기도로 모든 일정을 마쳤다.



쪽방촌 독거 어르신과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 나눠

사단법인 세계한국인기독교총연합회

사단법인 세계한국인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조일래 목사, 사무총장 신광수 목사, 이하 세기총)는 신년하례회를 지난 1월 20일(수) 오전 10시, (사)해동는마을 노인대학, 신생명나루교회(정한일 목사)에서 소외된 독거

노인과 쪽방촌 어르신들을 섬기며 2021년 새해를 시작했다.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철저히 지킨 가운데 진행된 이날 신년하례식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2.5단계에 따라 교회에서 식사를 제

공하지 않고 시간 간격을 두고 어르신들이 참석하여 대제식과 함께, 목도리와 마스크를 전달했다. 거동이 불편한 관계로 교회를 찾지 못한 어르신들에게는 봉사자들이 어르신들을 직접 방문해서 선물과 대제식을 전달했다.

선물 전달 후 진행된 신년하례예배는 공동회장 김태성 목사의 사회로 상임회장 원종문 목사의 기도, 법안감사 나복한 장로의 성경봉독이 있었으며 대표회장 조일래 목사가 ‘연초부터 연말까지(신 11:8-12)’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대표회장 조일래 목사는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간 곳은 결국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곳”이라면서 “반대로 하나님께 의지하면 풍성히 먹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신대-대한민국역사문화연구원, 협약

아시아와 아프리카 차세대 인재 양성

고신대학교(총장 안민)와 대한민국역사문화연구원(원장 김형석)은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차세대 인재양성과 삶의 질 향상 및 한국문화의 해외보급 사업을 통해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지난 1월 11일(월) 오후 고신대학교 섬김관 5층 회의실에서 협정을 체결했다.

이번 협정식은 ‘Amazing Korea Project(이하 AK 프로젝트)’를 위한 인적 자원을 양성하기 위해 교육과 훈련 공간을 제공하고 이에 필요한 프로그램과 재정을 상호 지원하



며, 양 기관의 논의를 통해 추후 AK 프로젝트의 세부적인 협력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고신대 안민 총장은 “대한민국역사문화연구원과 큰 꿈을 그릴 수 있도록 동역을 시작하게 돼 매우 감사하다”며 “대한민국역사문화연구원과의 동행을 통해 모두가 예상하는 것을 뛰어넘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형석 원장은 “한국 문화의 해외 보급 사업을 통해 새로운 역사를 이끄는 프로젝트가 될 수 있도록 헌신하겠다”고 말했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 산하 지방신학교

2021학년도 신·편입생 모집



(학장 한 명 집 목사)

예하성부산신학교

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 교무처로 문의
- 장학혜택 : 각종 장학제도
- 주 소 : 부산시 부산진구 새싹로35번길 14
- T E L : 051)803-3927
- F A X : 051)581-0198
- e-mail : yhsbs3927@hanmail.net



(학장 최 정 식 목사)

예하성광주신학교

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 교무처로 문의
- 장학혜택 : 각종 장학제도
- 주 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목련로 372-25
- T E L : 062)952-7004
- F A X : 062)953-5004
- e-mail : sm1004@daum.net



(학장 오 일 선 목사)

예하성충남신학교

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 교무처로 문의
- 장학혜택 : 각종 장학제도
- 주 소 :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중11길 14 한길프라자 B동 301호
- T E L : 041)567-3004
- F A X : 041)575-3171
- e-mail : changdeman@hanmail.net



(학장 김 상 용 목사)

예하성청주신학교

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 교무처로 문의
- 장학혜택 : 학교장 장학금, 이사장 장학금, 지방회 장학금, 목회사역자, 사모, 자녀 장학금
- 주 소 :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168
- T E L : 043)274-2265, 273-2211
- F A X : 043)237-2705
- e-mail : ho-gi@hanmail.net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JESUS ASSEMBLIES OF GOD IN KOREA
http://www.aogk.org / e-mail:aogk@aogk.or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본부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2 나길 8
TEL:02)2675-5181~3 FAX:02)2677-5181

성명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편향된 이념에 기반한 왜곡된 학생인권종합계획 실시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

학생들의 동성애 행위를 인권이라 주장하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이후, 조희연 교육감은 편향된 이념에 기반한 왜곡된 인권을 학교교육 전반에 걸쳐 제도적으로 더욱 확산시키기 위해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2021-2023)](이하 인권계획)을 시행하려 하고 있다. 바른 학교 교육과 인권을 세우기 위해 40개 단체가 연합하여 구성된 [건강한 사회단체 전국협의회](이하 건협)는 조희연 교육감은 인권계획 실시 계획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모든 권리가 다 인권으로 보장받는 것은 아니다. 한 개인이나 특정 계층의 권리 주장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 인권이란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보호받아야 할 권리로서 도덕성, 우월성, 보편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 인권은 다른 어떤 권리에 앞서 보호해야 하기에, 모든 권리를 인권으로 인정할 수 없다.

동성애의 행위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4번의 판결에 따르면 부도덕한 성적만족행위로서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인권이 될 수 없다. 동성애는 학교에서 동성애를 정상적인 성행위로 가르치는 것을 반대할 다른 사람의 신앙과 양심, 표현과 학문의 자유를 제한할 권리가 될 수 없다. 그러나 인권계획은 동성애에 대한 다른 사람의 반대를 차별과 혐오라고 주장하며, 학생인권센터, 성인권시민조사관 등을 통해 압박과 처벌까지 서슴치 않으려 한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인식개선이란 명분으로 동성애 성행위를 정상적인 성행위로 가르치려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모든 법과 제도는 모든 사람의 인권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학생, 여성, 노동자 등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의 인권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지만, 학생인권, 여성인권, 노동인권 등이란 개념을 통해 특정인의 권리만 강조하여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인권계획은 젠더이데올로기와 급진적 페미니즘, 좌편향 정치이념에 따라 학생인권, 여성인권, 노동인권 등의

개념을 통해 인권보호가 아니라 계층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새로운 특권을 조장하고 있다. 또 학생들에게 이를 정당한 인권의 일종으로 가르치려 한다.

흡연 행위를 반대한다고 해서 흡연자의 인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듯이, 사람의 인권은 보호해야 하지만 잘못된 행위를 인권화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동성애 행위를 인권화 해서는 안 되고, 신체에 나타난 성별(sex) 대신에 수십 가지의 제3의 성을 포함하는 젠더(gender)라는 사회적 성에 기반한 젠더이데올로기의 성평등 주장을 인권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인권계획은 동성애 행위와 사회적 성에 기반한 성평등 주장을 성인권이라 주장하고 있다. 또 좌편향 사상에 따라 노동인권이라 개념을 통해 노동권이 기업의 경영권보다 더 우위에 있다는 것을 인식시키려 하고 있다.

헌법 제31조는 교육이 정치적 중립성을 가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또 헌법은 생물학적 성에 기반한 양성평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인권계획은 헌법과 법률을 벗어나 제도적으로 특정 정치이념과 편향된 사상에 기반한 내용을 학생들에게 교육하려 하고 있다. 특히 민주시민교육을 명분으로 하여 특정 정치이념을 가르칠 것이 심히 우려된다. 인권계획은 이를 유치원교육에서부터 적용하려 하고 있다.

지금 국내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인해 심각한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겪고 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왜곡된 인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기본권을 심각히 침해하고 한걸음 더 나아가 민형사상 처벌하려 하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시행하려는 인권계획은 교육에서의 차별금지법으로서 헌법 헌법과 법률을 위배할 뿐만 아니라, 충분한 사회적 논의도 없이 진행하고 있어 엄청난 사회적 혼란과 갈등이 우려된다.

자라는 학생들에게 편향된 이념에 기반한 왜곡된 인권을 법과 제도를 통해 주입하려는 시도는 자라는 자녀들을 피해자로 만들 뿐

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파괴하는 범죄행위를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40개 단체가 연합하여 구성된 [건강한사회단체 전국협의회]는 조희연 교육감이 인권계획 실시 계획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만약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행할 때에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이에 따른 모든 사태의 책임은 조희연 교육감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혀 둔다.

2021년 1월 25일

건전한 사회단체 전국협의회 (40개 단체 연합)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세계성시화운동본부, 국민을위한대안, 애국단체총연합, 트루스포럼,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전국교수연합, 도덕국민운동본부,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바른국민권연구소,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부산동성애대책시민연합, 건강과가정을위한학부모연합, 전국17개광역시기독교총연합, 다음세대사랑학부모연합, AIE 바인세, 옴은가치시민연합, 나다움교육연구소, 일사각오구국목회자연합, 다음세대를위한학부모연합, 강원교육사랑학부모연합, 건강한국교육학부모회, 아산바른인권위원회, 천안바른인권위원회, 건강부산산만들기시민연합, 울산동성애시민대책연합, 울산다음세대세우기학부모연합, 부산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제주바른교육학부모연합, 우리아이지킴이학부모연합, 충북교육시민사회단체협의회, 포항건강한가정지킴이연대/연합, 리커버 교육회복교사연합, 다음세대바로세우기실천연대, WITH YOU 캠페인 태아생명살리기, 카도슈아카데미

■ 생명의 말씀 ■



김 건 수 목사

· 교단 회계, 제주지방교회장
· 예하성 부흥사회 부회장
· 제주한마음교회 담임

우리 주님께서는 특별히 아끼고 사랑하는 자들에게 진정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경에는 신앙생활의 본질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좇아가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사는 삶, 또한 온전히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 받는 삶, 다시 말해 내 욕망에 이끌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당하고 내 삶을 통해 그분의 뜻을 이루는 가는 삶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하여 열 가지 계명을 쓴 돌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말씀이 새겨진 돌판을 나무 껍질에다가 담고서 그 껍질 위아래가 황금을 입혀서 간직했고, 그 보석같이 귀한 말씀을 좇아 살려고 했기에 그것을 황금궤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이라 해서 언약궤라 하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지키며 살도록 명하신 법이라 해서 법궤라고도 했으며, 이 말씀대로 사는

벤세메스로 가는 소 (삼상 6:1~14)

자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증거해 준다고 해서 증거궤라고도 했습니다.

이렇게 금으로 만든 궤짝 안에다가 말씀을 소중히 담아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를 가든지 그 법궤가 항상 맨 앞에 행진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법궤 위 속죄소에서 만나주셨습니다. 속죄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와 허물을 덮어준다 해서 덮는 그릇이라고 했고, 죄를 용서받는 장소라고 해서 속죄소라고도 했으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라고 해서 시온좌라고도 했습니다. 그곳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 용서받고 문제를 해결 받는 접촉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아벡 전투에서 블레셋에게 이 법궤를 탈취당해 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법궤를 탈취당한 지 7개월째 되던 날 법궤를 탈취한 블레셋 사람들에게 엄청난 독종이 생기기 시작하고 법궤를 들여다보는 자는 그 자리에서 즉사했고 계속해서 재앙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금기야는 이 궤를 빼앗아 온 것을 후회했고 너무나 두려워서 서로 이 법궤를 가지고 가라고 떠넘기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것을 원래 있던 곳으로 돌려주기로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법궤를 반환하는 과정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있는 법궤를 옮기는 방법을 상의한 끝에 법궤를 실어갈 새 수레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는 단

한 번도 땅에를 매어보지 아니한 젃 나는 소 둘을 데려왔습니다. 금방 새끼를 낳아 젃 이 막 흘러내리는 어미 소를 준비하고 그 다음에 새 수레에 법궤를 싣고서 그 수레를 끌게 하고 그 어미 소를 애에게 젃는 새끼 송아지는 단호히 떠나서 돌려보내라고 합니다. 왜 꼭 그렇게 해야만 했을까 우리는 한번 깊이 생각해보야 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법궤를 메고 가는 젃이 나는 암소 두 마리는 오늘날 그 복음을 듣고 진리의 말씀을 세상에 전해야하는 신약교회 성도들 즉,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직 젃이 나오는 어미 소 두 마리를 쓴 이유가 쵼까요? 그리고 새끼 송아지들은 떠나서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합니다. 어미가 금방 송아지를 낳았는데 그 새끼를 떼어놓으면 송아지는 어떻게 되겠으며 새끼소를 바라보는 어미 소의 심정은 어떻게 쵼겠습니까? 정말 짐승들도 자기가 낳은 새끼만큼은 자기 스스로 생존할 수 있을 때까지는 목숨을 걸고서 지켜뵈 양육합니다. 지금 이 어미 소들은 아마 가슴이 쵼어질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어미 소가 벤세메스 쪽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뵈 갈 때에 울고...”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쵼까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바로 이 어미 소의 모습이여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내 인생의 등(상) 위에 진리의 말씀을 싣고 세상에 전하러 나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떼어내

야 될 것이 있고, 내려놓아야 할 것이 있고, 포기해야 할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때로는 외롭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서럽기도 하고 가슴이 아프기도 한 것들을 다 이겨내면서 진리의 말씀을 증거해야 하기때문에 그러한 고난도 묵묵히 감수하고 가야만 되는 길이 우리 신앙인의 여정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떼어놓고 내려놓는다는 것이 어디 그리 쉽습니까? 내 삶에 조그마한 부담과 불이익만 와도 말씀(언약궤)을 도로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말씀을 내려놓고 넓고 쉬운 길을 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오늘 이 어미 소는 서럽게 평평 울면서 올라갔는데 좌우를 돌아보지 않고 벤세메스를 향해 묵묵히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가다가 자꾸 마음이 쵼여서 좌우로 기우뚱 기우뚱 할 수도 있었는데도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저 땅만 쳐다보고 눈물을 똑똑 흘리면서 하나님의 말씀 궤를 실은 수레를 어깨에 메고 묵묵히인 벤세메스를 향하여 묵묵히 올라갔던 소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과 사명 앞에서 이러한 고통을 감내해야 할 위기가 닥쳐오면 과연 아픔을 감수하면서서도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것인가 위기를 거부하고 사명도 포기하고 내가 원하는 길로 갈 것인가 한번 쵼 생각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말씀 때문에 떼내보내야 할 것이 있고, 사명 때문에 포기해야 할 것이 있고, 주의 영광 때문에 핏박 받아야하고, 직분 때문에 서러울 당해야

하고 진리 때문에 외톨이 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이 벤세메스 골짜기까지 드디어 이 젃 나는 암소 두 마리가 법궤를 싣고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어미 소들이 사력을 다해 무거운 짐을 메고 올라오느라고 죽을 고생을 했다고 해서 결코 물과 먹이를 먹여 주지 않았고, 그러운 새끼에게 돌려보내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소가 끌고 온 수레를 쪼아 그것으로 단을 쪼고 그 어미 소를 그 자리에서 칼로 잡아 목을 치고 내장을 꺼내고 각을 떼서 단 위에 올려놓고 완전히 태우고 재를 만들어 그 향기를 하나님께 올려 보냈습니다. 이것을 번제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참 그리스도인들은 삶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쵼까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많이 했으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주신 환경을 가지고 세상에서 분에 넘치도록 먹고 마시고 즐기며 사는 것일쵼까요?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순간까지 내 남은 목숨 한 조각까지도 온전하게 드리고 자기가 말씀을 싣고 올라갔던 바로 그 수레(육체)마저도 팔갑으로 쪼서 자신의 몸은 번제물로 완전히 불태워 하나님께 이쁨드나 향기로 흡향하시게 하고 오직 주님의 영원한 진리의 말씀만을 남겨둔 채 우리는 빛도 이름도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벤세메스로 올라가는 소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겠습니다.

주님은 당나라에서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자들에게 사랑의 표현으로 임금(사명=복음)을 맡겨주십니다. 그리고 신실하게 감당하는 자들과는 세상 끝날 까지 항상 함께 역사해 주십니다. 이 땅은 우리가 주님께 받은 사명을 등에 지고 죽도록 충성해야 할 사역자이고, 쉬고 위로받고 상 받을 곳은 이 땅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보좌 앞입니다.

세력에 의해 장악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반대한다.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의 국가이며, 어느 특정 정파나 권력이나 이념에 기울어지지 않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이런 국가기관들의 역할이 중요한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정치권이나 권력자들이 자기편으로 끌어들이고 이를 이용하려고, 불편부당(不偏不黨)을 깬다면, 이는 자유민주주의를 무너트리는 것이며 국민들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것이다.

따라서 방심위 위원들을 추천할 위치에 있는 국가 지도자들은 국가의 발전과 방송의 공정성, 객관성을 중립적 입장에서 심의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도록 해야 한다. 또 위원으로 추천되는 사람들도 스스로 공정성을 잃어버려 방송 권력을 견제할 자신이 없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것을 사양해야 한다.

동 정

성경대, 마이나비코리아(주) MOU



성경대학교(총장 정희석) 대학일자리 개발처는 지난 1월 14일(목) 라마다호텔(선정영역)에서 마이나비코리아(주), 세이카쿠사코리아(주)와 해외취업 활성화를 위한 협약식과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글로벌 경제위기 시대에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KWMA 주승중 신임 대표



한국세계선교회협의회(이하 KWMA) 제31차 정기총회 및 신년 하례회가 지난 12일(화) 141명의 총대(6명 위임)가 참석한 가운데 온라인으로 개최됐다. 이날 정기총회에서 조경호 목사(대전 대흥침례교회)에 이어 주승중 목사(주안장로교회)가 1년 임기의 신임 대표회장으로 취임했다.

리처드 랜드 박사 바이튼에 공개



서던복음주의신학교 총장인 리처드 랜드 박사(Dr. Richard Land)가 미국 크리스천포스트를 통해 ‘복음주의 지도자가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이라는 제목의 글을 실었다. 랜드 박사는 “대다수의 미국 복음주의자들은 매일 당신을 위해 기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직장선교연 신임대표회장 진승호



한국기독교직장선교연합회(한직선·이사장 주대준, 대표회장 진승호)가 지난 1월 23일(토) ‘제40차 신년하례예배 및 제9회 직장선교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신임 대표회장 진승호 장로(충무성결교회)는 “우리의 관심과 역량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에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논평

한국교회언론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철저히 중립을 지켜야 한다

방송법에 의하여 만들어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 이하 방심위)는 매우 중요한 국가 기관이다. 이곳에서는 방송의 공적 책임과 방송물에 대하여 심의하는 곳이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보면, 방송은 공적 매체의 본분을 지키고, 국민의 윤리의식과 건전한 정서를 해치지 않고, 인간의 존엄한 가치와 헌법의 민주적 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의 화합과 여론 형성에 이바지하고, 민족의 주체성 함양과 민족문화의 계승과 발전에 기여하고, 인류 보편적 가치와 인류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사회적으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 등을 실현하는 것인데, 이를 심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를 위해서는 방송의 공정성, 객관성, 권리침해금지, 윤리성 준수, 어린이와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방송 내용의 적절성과 사회적 책임에 대하여 감시하고 오류를 판단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방심위 위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공정성과 객관성을 준수하는 인물이 맡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곳의 위원은 9명인데, 대통령과 국회

의장, 국회 해당 위원회에서 각각 3인씩을 추천한다. 그런데 방심위가 이날 말 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할 것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편향적인 활동을 해온 민주언론시민연합의 인사들이 다수 진입할 것이라 언론 보도가 있어, 매우 우려된다.

심지어 위원장은 전 KBS 사장을 지낸 정00 씨가 거론된다고 한다. 정00 씨는 노무현 정권 시절인 2008년부터 2008년까지 약 5년 8개월을 사장을 지냈던 인사로, 당시에 도 국가 공영방송에 맞지 않게, 여러 가지로 편파적인 행보를 보였던 인물이다.

오죽하면 1월 22일 KBS 노동조합은 정00 씨가 방심위 위원장이 되는 것을 반대한다는 입장의 성명을 통하여, ‘한쪽 정파의 시각만을 대변해 왔고, 반대편 시각의 언론에 대해 적대적 감정을 숨기지 않았던 자가 방통심의위 위원장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또 ‘정00 씨의 언론관을 조금만 확장하면 바로 대한민국은 프라우다와 인민일보, 로동신문만 있으면 되는 나라가 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정00 씨 자신이 말한 것처럼, 방송이 특정

힐링네이처가 생산한 천연 전나무제품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전나무에서 직접 추출한 에센셜 오일에 허브를 배합하여 만든 천연 전나무 제품입니다.

① 전나무 맑은호흡산책길 스프레이 (100ml)

•원재료 : 전나무오일, 청호오일, 선택리향오일, 유칼립투스오일, 페퍼민트오일, 라벤더오일, 티트리오일, 구주소나무오일, 유향유, 아틀라스티우드오일, 생강오일, 계피유
•사용법 : 가슴과 호흡이 답답할 때 가슴에 직접 분사하거나 공기중에 뿌려줍니다.

② 전나무 참편한근육마사지 스프레이 (100ml)

•원재료 : 전나무오일, 도향오일, 상지오일, 페퍼민트오일, 로즈마리오일, 라벤더오일, 유칼립투스오일, 두송열매오일, 꽃박하오일, 레몬그라스오일, 캐모마일오일, 생강오일, 계피유, 선택리향오일, 유타그린오일
•사용법 : 어깨, 종아리등 통지고 통증이 있는곳에 뿌린 후 마사지합니다.(운동전후/운전시수험생/컴퓨터작업시)

③ 전나무 에센셜 스프레이 (100ml)

•원재료 : 전나무워터, 전나무오일, 페퍼민트오일, 아틀라스티우드오일
•사용법 : 두피에 뿌린후 골고루 마사지합니다.

④ 전나무 퓨어 에센셜오일 (10ml)

전나무에서 추출한 에센셜 오일 100% 로써 마음과 몸을 정화합니다.
•원재료 : 전나무오일
•사용법 : 한두 번 혼들어 손목 안쪽, 목, 옷 상의, 베개 등에 한,두방울 사용합니다. 따뜻한물에 2~3방울 섞어 족욕이나 반신욕시 사용합니다. 캐리어오일에 1~2방울 섞어 부드럽게 마사지합니다.

⑤ 전나무 숲 블렌딩오일 (10ml)

전나무오일과 허브오일을 블렌딩하여 만든 천연오일입니다.
•원재료 : 전나무오일, 라벤더오일, 페퍼민트오일, 아틀라스티우드오일, 유칼립투스오일,구주소나무오일,유향유
•사용법 : 한두 번 혼들어 손목 안쪽, 목, 옷 상의, 베개 등에 한,두방울 떨어뜨려 사용합니다. 따뜻한물에 2~3방울 섞어 족욕이나 반신욕시 사용합니다. 캐리어오일에 1~2방울 섞어 부드럽게 마사지합니다.

■ 힐링네이처의 이로운 전나무 제품은 화학물질을 일체 첨가하지 않은 순수 천연제품입니다.

⑥ 맑은호흡 캔들 (130g)

최고급 천연소이왁스에 전나무오일을 첨가하여 사용시 전나무숲길에 있는듯한 피톤치드를 선사합니다.
•원재료 : 소이왁스, 전나무오일

⑦ 전나무 오리자랄 비누 (100g)

보습성이 뛰어난 코코넛오일과 세이버터베이스에 전나무오일과 전나무분말을 첨가하여 부드럽고 촉촉한 사용감으로 만족을 드립니다.
•원재료 : 코코넛오일, 세이버너, 전나무오일, 전나무분말등

⑧ 전나무 센서티브 비누 (100g)

민감한 피부에 적합한 라벤더오일, 캐모마일꽃오일등을 첨가하여 순하고 부드러운 사용감으로 만족을 드립니다.
•원재료 : 전나무오일, 라벤더오일, 캐모마일꽃오일, 사이버터, 마카데미아넛오일등

⑨ 젤뮬케어 립밤 (15ml)

입술이나 건조해지기 쉬운 신체 어느부위든지 발라주어 부드럽음과 촉촉함을 유지시켜줍니다.
•원재료 : 전나무오일, 호호바씨오일, 스위트아몬드오일,아보카도오일, 비즈왁스, 자몽껍질오일, 오렌지껍질오일등
•사용법 : 입술, 손, 발, 각질부분등에 발라줍니다.

⑩ 전나무워터 (180ml)

전나무 오일에서 추출한 100% 전나무 워터입니다.
•원재료 : 전나무워터
•사용법 : 화장실, 부엌등 향균이나 향취가 필요한곳에 뿌려줍니다.

(주)힐링네이처농업회사법인 / 경영지원부 부장 권영은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하송정길 340-50 TEL. (033) 333-2018 FAX. (033) 334-2018 / www.healingnature.biz

포커스

재성호 교수 //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충신교회 장로

차별금지법의 문제점과 한국교회의 대응⑧

제24조(보건의료서비스 공급·이용의 차별금지) ① 「보건의료기본법」 제33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인(이하 “보건의료인”이라 한다) 및 보건의료기관(이하 “보건의료기관”이라 한다)은 성별 등을 이유로 한지에 대하여 치료·간호·예방·관리 및 재활, 그 밖에 보건의료서비스의 공급·이용에 있어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② 보건의료인 및 보건의료기관은 성별 등을 이유로 보건의료서비스의 공급·이용·연구·교육 등에 있어 차별해서는 아니 되며, 의료서비스의 공급·이용에 있어 성별 등에 적합한 의료정보 등의 필요한 사항을 환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25조(문화 등의 공급·이용의 차별금지) 문화·체육·오락, 그 밖의 문화·체육(이하 “문화 등”이라 한다)의 공급자는 성별 등을 이유로 문화 등의 공급·이용에서 배제·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시설물 접근·이용의 차별금지) 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성별 등을 이유로 해당 시설물의 접근·이용·임대·매매에 있어서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제27조(관광서비스의 공급·이용의 차별금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관광진흥법」 제22조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자는 성별 등을 이유로 운송·숙박·음식·오락·휴양 및 용역 제공, 그 밖에 관광부대시설의 공급·이용에 있어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제28조(정보통신서비스 공급·이용의 차별금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성별 등을 이유로 인터넷 소셜미디어, 전기통신 등 정보통신서비스의 공급·이용에 있어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제29조(방송서비스 공급·이용의 차별금지) 신문기자, 광고,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방송통신콘텐츠를 제작하거나 공급하는 자는 성별 등을 이유로 방송서비스의 제작·공급·이용에 있어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제30조(단체 등의 운영에서의 차별금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단체(이하 “단체 등”이라 한다)는 성별 등을 이유로 단체 등의 가입을 거절하거나 가입에 있어 불리한 조건을 붙이거나 구성원 자격을 제한·박탈하는 등 단체 등의 가입·활동·이익 공여에 있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원의 자격을 제한한 경우로서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을 조정하거나 선동하기 위한 목적이나 효과가 없는 경우는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지정기부금 단체 등으로 지정된 단체
2. 「미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3.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4. 「정당법」에 따른 정당

5. 그 밖에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등 공공성이 인정되는 단체

② 제1항제5호의 적용기준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교육기관의 교육·직업훈련

제31조(교육기관의 차별금지) ① 교육기관의 장은 성별 등을 이유로 교육기관에 지원·입학·편입을 제한·금지하거나 교육활동에 대한 지원을 달리하거나 불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교육기관의 장은 성별 등을 이유로 전학·지퇴를 강요하거나 퇴학 등의 불이익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2조(교육내용의 차별금지) 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교육목표, 교육내용, 생활지도 기준이 성별 등에 대한 차별을 포함하는 행위
2. 성별 등에 따라 교육내용 및 교과과정 편성을 달리하는 행위
3. 성별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혐오나 편견을 교육내용으로 편성하거나 이를 교육하는 행위
4. 그 밖에 교육내용 등에 있어 성별 등을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하거나 현존하는 차별을 유지·심화하는 행위

제33조(취업활동 및 교육서비스의 차별금지) 교육적인자와 교육담당자는 성별 등을 이유로 수업이나 실험·실습, 현장견학 수학여행 등 교육시설 내외의 활동과 건강검사, 급식 기타 혜택 등 복리 및 서비스 제공, 생활기록부 작성, 평가, 징계 등 생활지도 기준에 있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4조(교육기관의 장의 편의제공 의무) 교육기관의 장은 피교육자가 동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시설 및 교구 등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상의 과도한 부담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교육책임자 등의 의무) ① 국가기관의 장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정책 제도와 인력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의 장은 교육기관 내에 차별 없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제도의 수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6조(지역적 및 교육훈련에서의 차별금지) 「자격기본법」 제11조, 제17조에 따른 국가자격을 신설·관리·운영하는 자는 자격증의 취득·자격검정,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교육훈련의 제공 등에 있어 성별 등을 이유로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차별을 해서는 아니 된다.

1. 자격증 취득에 있어 해당 자격과 무관한 성별 등을 설정하는 행위
2. 성별 등을 이유로 자격 검정, 교육훈련 제공에 있어 차별하거나 해당 자격과 무관한 자격 검정, 교육훈련을 요구하는 행위

제4절 행정서비스 등의 제공이나 이용

제37조(행정권 및 행정서비스 이용 보장 의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별 등을 이유로 개인이나 집단이 행정권 행사와 행정서비스 이용에서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의 조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수사·재판상의 동등대우 수사·재판 절차 및 서비스에 있어 관련 기관은 성

별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39조(사용자의 편의제공 의무) 사용자는 장애인 특정 신체조건을 가진 자 등이 장애인이나 자 등과 동등한 근로조건에서 근로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경영상 과도한 부담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조(방송서비스 제공의 의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은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에게 지막, 문자, 한국수어 통역, 음성서비스 등의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장 차별의 구제

제41조(진정 등) ① 이 법에 정한 금지된 차별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 차별행위의 피하자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와 구제에 관한 사항은 이 법에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는 한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다.

제42조(시정명령) ① 위원회는 이 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의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으로서 이 법에서 금지되는 차별행위를 한 자(이하 “차별행위자”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차별행위의 중지
2. 피해의 원상회복
3. 차별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4. 그 밖에 차별사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 위원회는 제4항 및 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서면으로 하되,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차별행위자와 피해자에게 각각 교부하여야 한다.
④ 차별사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기간,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한동대, ‘호흡기 감염확진 받은 정신질환자 음압병실 재설계’

한동대학교(총장 장순흥 박사)는 국립정신건강센터와 협력 및 한동공학교육혁신센터의 지원을 받아 ‘호흡기 감염 확진을 받은 정신질환자들을 위한 음압병실 재설계’라는 주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성과를 발표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이원형 전산전자공학부 교수의 2020학년도 2학기 공학설계입문 수업 수강생 총 96명이 25개팀을 구성해 정신질환자들과 의료진들을 위한 공학적 해결 방법을 찾고자 진행했다.

지난해 2월 청도대남병원 정신병동 사례에서 정신질환자들이 음압병실과 같은 감염병 시설을 사용하기 어렵다는 점이 드러나 의료기관시설의 개선과 사회적 인식, 기술개선 등 다양한 문제해결을 위한 접근 방법이 대두된 바 있다.

이번 프로젝트는 남윤영 국립정신건강센터 의료부장 제안으로, 코로나 상황 속에서의 의료 시각대에 놓인 정신질환자 음압병실 재설계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반영했다.

남윤영 의료부장은 지난해 10월 29일 ‘정신질환의 치료원칙과 감염병 치료를 위한 음압격리병동 환경’을 주제로 한동대 학생 대상 온라인 강연을 진행했고, 학생들은 강연을 들은 후 공학설계입문 수업에서 배운 설계 방법을 적용해 정신질환자들을 위한 음압병

실 재설계를 이어갔다.

프로젝트 참여 학생들은 정신질환자들과 의료진들이 기존 음압병실을 사용할 때 겪을 수 있는 어려움 및 문제를 정의하고 목표설정, 핵심 기능설정, 형태 도표 작성, 대안 생성, 피드백의 과정을 거쳐 프로젝트 결과물을 발표했다.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한 학생은 “음압병실에 대한 지식과 더불어 평소 접해보지 못했던 정신질환자들의 특수성을 이해할 수 있었다”며 “이번 프로젝트 주제를 제안하고 강연을 통해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를 알리고자 노력하시는 남윤영 의료부장님에 대해 감사하다”고 말했다.

프로젝트를 지도한 이원형 한동대 전산전자공학부 교수는 “학생들이 자신의 전공지식을 통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교육적 목표가 뚜렷했던 수업이었다”며 “향후 국립정신건강센터와 협력해 이번 프로젝트 공동연구를 지속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번 프로젝트 결과물은 지난달 22일과 이달 6일 국립정신건강센터에 전달됐다. 프로젝트 결과 관련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프로젝트 결과: https://whlee-hgu.github.io/2020-2_ID2_Project/

제43조(의견제출기회의 부여) ① 위원회는 제42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기 전에 시정권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제4항의 경우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위원회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44조(이행강제금) ① 위원회는 제42조의 시정명령을 받고 그 정한 기간 내에 시정명령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3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의 금액·부과사유·납부기한 및 수납기관·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서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계속하여 시정명령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내용이 이행될 때까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다시 부과할 수 있다.

④ 이행강제금의 부과, 징수, 납부 환급 이의제기 절차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이의신청) ① 제42조에 따른 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처분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재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재결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30일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선교지에서 온 편지 - 태국에서

태국에 감염자가 잠잠해져서 선교를 활발히 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씨앤티엠!

2020년 한 해 동안 태국 선교와 함께 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선교 소식 드립니다.

방콕안디옥교회

방학을 맞아 인도네시아 친정에 갔다가 코로나로 인해 발이 묶였던 신디가 집사와 딸 전파(6학년)가 6월 말에 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전파는 국적이 태국이지만 태국 정책이 강경해서 돌아오는 과정에 여러 난관들이 있었는데 주님 은혜로 돌아와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어 감사했습니다.

주일 예배 식사 후 진행했던 성경공부(10단계 성경공부)과정을 모두 마친 성도들이 아내와 함께 QT 모임과 나눔에 대한 훈련을 하고 있고, 저는 청년들을 위한 성경공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지만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일꾼들로 세워지고 주님의 제자들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태국은 관광 수입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정부가 문을 완전히 봉쇄하고 있어서 특별히 개인사업을 하는 성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장기화 지속되고 있고 또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 많은 기도가 많이 필요한 때입니다.



▲한 어린이(예수님 영접)

매일 저녁기도 모임과 금요일기도회는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태국은 대부분 맞벌이 부부가 많아서 주중의 모임이 쉽지 않지만,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함께 하는 성도들이 귀하고 감사합니다.

지난 11월 추수감사절 예배는 코로나로 어려운 때이지만 2020년 한 해를 돌보아 주신 하나님께 특별한 감사(헌금)를

하지고 권고를 했는데, 힘든 중에도 힘써서 헌신하는 모습에 감동했습니다.

교회 옆에 사는 “쌍언” 성도는 십일조에 대한 오후에 예배에 나오지 않은지 여러 해되어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부터 “쌍”이라는 손자가 내려와 같이 살고 있는데, 쌍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 오는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쌍을 통해 쌍언도 다시금 교회에 나오는 계기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 모임 및 차량인도

지난 11월 30일에는 방콕안디옥교회에서 목회자 모임을 가졌습니다.

나론파농교회 옛 전도사는 성도의 정례(교통사고로 참석하지 못해 함께 하지 못했지만 모두에게 은혜로운 시간이었고 여러모로 어렵고 힘든 목회현장에서 목목히 사명을 감당하는 목회자들로 인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관첫 전도사(논쑈분교회)의 차량이 너무 노후화되어 쌍 전도사(씨앤티엠교회)에게 픽업차량을 헌납하면 어떻



▲픽업차량 인도식

겠나고 도전을 했는데, 마음에 부담을 갖고 2대 중에서 헌납 받았던 픽업차량을 양도했습니다.

차량 수리에 3만바트(111만원)가 소요되었지만 서로의 어려움을 나누고 격려하는 모습을 보며 기뻐했습니다. 차량수리에 함께 해주신 대한항공 권력희 자매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반부아교회

교회를 건축한지 근 20여 년 되어서 지붕 슬레이트를 교체할 시기가 되었고, 교회 옆으로는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한 공간을 건축하고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에이즈에 걸렸다가 주님 은혜로 완치된 위라 형제는 가족들 모두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고, 쌍뽀 전도사의 차량이 낡아주어 사 용에 어려움이 있기에 자신의 픽업차량을 쓸 수 있게 해서 교회와 목회 활동에 큰 도움이 되고 있지만, 이전에 하던 술과 담배를 끊지 못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옛 습관에서부터 완전히 벗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픽산인 지역에 기쁨이 심해서 파종 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사로 비를 내려 주셔서 수확을 하게 하셨습니다 선교사와 함께

나누기 위해 쌀을 가져온 쌍뽀 전도사의 마음이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논쑈분교회

관첫 전도사는 쌍 전도사에게 양도 받은 차량으로 인해 큰 기쁨과 감사한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통통 할아버지가 생전에 48(四)명의 절반을 기증하여 교회를 건축했지만 절반은 땅이 살다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판매를 해서 한 울타리 안에 두 집이 있는 상태였는데 그 집을 처분한다는 소식을 듣고 매입의 기회를 주시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절반의 대지(약5500원)에는 개인 집과 땅이 있어서 목회자 숙소와 자립양재, 양돈, 양어기에게 필요한 용도로 유용하게 쓰일 것 같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씨앤티엠교회

쌍 전도사는 축구를 좋아하고 재능도 있어서 스포츠를 통한 전도활동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와 특히 초등학교 아이들이

이 축구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저희도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반부아교회 근처의 초등학교에서 성탄행사와 축구를 통해 복음을 전했고, 스포츠 용품과 성탄선물을 나누었습니다. 스포츠 전도가 지속되어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복음의 통로로 잘 쓰일만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씨앤티엠 교회는 교회간판과 비좁은 1층 거실을 주차장까지 넓히는 확장 공사를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씨앤티엠교회

니노 전도사는 건강 악화로 오랜 동안 목회를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목회할 수 있을 만큼 건강하게 되었고, 중년된 목회를 돌고자 방콕안디옥교회 성도들과 주일



▲씨앤티엠 1층 거실겸 예배실

함께 기도해 주세요.

1. 태국에 다시 코로나 감염자가 나오고 있는데 속히 잠잠해 지고 선교에 지장이 없게 하소서!

2. 모든 교회들의 성탄예배를 통해 예수님이 증거 되고 은혜롭고 풍성한 시간이 되게 하소서!

3. TAM(Thailand Antioch Mission)을 통해 50개 교회 개척이 이뤄지며, 태국 기독교인 1%를 돌파하게 하소서!

4. 씨앤티엠교회의 교회간판과 예배 공간 확장, 반부아교회 지붕교체와 주일학교 아이들 교실건축, 쌍뽀 전도사 차량 구입, 논쑈분교회 옆 대지와 집을 매입 할 비용을 공급해 주소서!

5. 선기의 등록금(2학년 2학기)을 채워 주소서!

2020년 한 해 동안도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한 해를 달려오게 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고 함께 해 주시는 한분 한분과 교회들의 사랑의 수고임을 알기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코로나로 힘든 시기이지만 주님께서 삶과 일터와 모든 경영에 은혜와 복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매리 크리스마스 & 해피 뉴이! (썸썸 완 크리스마스 & 씨앤티엠미미!)

2020년 12월 9일

김학봉·서미식 선교사 드림

교단공과 신청

출판헌금

① 유치부학생용, 유년부학생용, 초등부학생용, 아동부교사용(유치, 유년, 초등부 합본) : 각 5,000원
② 아동부 설교파워포인트 USB : 10,000원
③ 성인용 : 8,000원

특징

아동부 공과교재
① 설교와 공과가 연계되어 있음
② 공과는 성경이야기와 활동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음
③ 영어가 삽입되어 있음

공과신청

① Fax: 02)2677-5181, 031)441-1793
② e-mail: aogk@aogk.org
③ 입금계좌: 농협 355-0053-3758-93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와진리교회

문의

전 화: 02)2675-5181~3, 031)447-2922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ASSEMBLIES OF GOD

사단법인 아산시 민족복음화 운동본부

대표회장 진등용 목사

본부장 이두영 목사

실무회장 박노섭 목사

상임회장

고문 정연창 목사, 강상철 목사, 김소윤 목사, 김형태 목사, 이영한 목사, 임기석 목사, 연용희 목사
자문위원 이명수(국회의원), 강훈식(국회의원), 오세현(아산시장), 고재권(아산경찰서장), 황재만(아산시의장), 아산교육장
대표회장 진등용 목사
본부장 이두영 목사
실무회장 박노섭 목사
사무총장 정진학 목사
총무 최순식 목사
상임회장 최규명 목사, 강영구 목사, 임용석 목사, 이정팔 목사, 이승수 목사, 김수홍 목사, 조이철 목사, 박귀환 목사, 온재천 목사, 황기식 목사
공동회장 진등용 목사, 노선웅 목사, 이두영 목사, 최규명 목사, 강영구 목사, 도승현 목사, 임은석 목사, 임용석 목사, 이정팔 목사, 이승수 목사, 김수홍 목사, 조이철 목사, 정훈화 목사, 박노섭 목사, 황창익 목사, 심우섭 목사, 최문기 목사, 박귀환 목사, 온재천 목사, 황기식 목사, 손 혁 목사, 김병완 목사
지도위원 박차영 목사, 방연식 목사, 박판용 목사, 최성덕 목사, 김병철 목사, 표의성 목사, 김관호 목사, 김득수 목사
부회장 박봉순 목사, 송화섭 목사, 이재구 목사, 최재희 목사, 박신석 목사, 엄태일 목사, 최상근 목사, 황하성 목사, 최순식 목사, 김원진 목사, 차추병 목사
사무총장 이광로 목사, 서석웅 목사, 장현원 목사, 이덕희 목사, 김성권 목사, 정병한 목사, 곽일귀 목사, 조계성 목사, 김의중 목사, 유현희 목사
상임총무 고영기 목사, 김형환 목사, 엄태일 목사, 이재두 목사, 김주섭 목사, 김현준 목사, 박덕수 목사, 신동철 목사, 구자범 목사, 안덕근 목사
후원회 회장 안흥규 목사, 이기연 목사, 박성화 목사
후원회 정진학 목사, 총무 최순식 목사, 서기 정수희 목사, 회계 박인숙 목사, 재무 이은혜 목사, 회원 아산시 400교회
후원계좌 박성민 목사, 이석주 목사, 이준호 목사, 임해성 목사, 정수희 목사, 정미숙 목사, 권필희 목사, 이은혜 목사, 박인숙 목사, 홍은식 목사, 김희석 목사, 오세완 목사
후원회 한상문 장로, 배성한 장로, 김영식 장로, 박동국 장로, 장상근 장로, 오좌근 장로, 김도식 장로, 김수홍 장로, 임도순 장로, 이익상 장로, 황의덕 장로
후원회 신요섭 장로, 이세영 장로, 김현우 장로, 박해서 장로, 한장섭 장로, 이창식 장로, 광웅기 장로, 차영환 장로, 김기운 장로, 박노완 장로
후원회 김현진 장로, 한상문 장로, 정진경 장로, 이희열 장로, 박종탁 장로 (외 각 교회 장로)

국민은행 450901-01-430312 (사)민족복음화운동본부

하나님이 주신 천년초 식품이 간헐적 단식에 최고의 식품입니다

천년초의 효능

1)폐활성물질
1 손상된 신세포조직복구(각종 염증을 다스림)
2 암세포 성장억제 각종 암의 예방(쥐실험)
(*고려대학교 손용석 교수님 암쪽으로 세계특허냄)
2)플라보노이드
1 성인병의 주 원인인 활성산소를 제거
2 노화억제, 항산화, 항염, 항암예방(원광대연구논문)
3 고혈압, 저혈압, 당뇨, 고지혈증, 백내장, 급성간염에 탁월(경희대연구논문)
4 뇌혈관 및 동맥경화 기능에 탁월, 뇌세포가 살아남(학계보고)
3)타식물린 : 퇴행성 관절염, 골다공증, 관절염, 통풍, 오십견, 류마티스관절염, 강직성 척추염(줄기를 붙여도 탁월)
(전북대연구논문)
4)호흡기, 위 : 위염, 위궤양에 탁월(서울대연구논문)
5)사포닌 : 면역력 증가
6)칼슘 : 홍화씨의 2배, 멸치의 9배, 우유의 50배, 감의 343배, 딸기의 240배, 머루의 600배 들어있음
(호서대연구논문)
(*천년초를 복용하면 뼈가 새로 만들어 진다는 엄청난 연구논문 발표됨)
7)식이섬유 : 타식물(과일류, 채소류, 곡류)과 비교불가(호서대연구논문)
식이섬유가 많아 다이어트에 최고식품 **변비 즉시 개선**
8)불포화 지방산 : 고등어의 3배 오메가 3, 6 함유로 식품중 가장 많이 들어있음
9)비타민C : 알로에보다 8배, 오렌지보다 25배, 사과보다 48배, 딸기보다 11배로 식품중 가장 많이 함유(전북대연구논문)

70인 천년초식품

***본제품은 식약처(성분검사)를 필함**

백년초는 멕시코 산으로 독성이 있습니다.
천년초는 로종 한국산으로 독성이 없습니다.
천년초와 백년초는 완전히 다른 종입니다.

*천년초는 인체에 무해하며 독성을 지니지 않음
(서울대학교 천연물과학연구소 발표)

10)기타성분 : 단백질, 탄수화물, 화분, 지방, 아미노산, 마그네슘 등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음이 연구를 통해 발표됨.
11)아토피, 피부질환 개선에 탁월한 효과
*간, 폐, 위, 기관지, 대장, 췌장, 신장, 자궁, 갑상선, 심장, 유방에 효과입증
*체질개선을 위해서는 천년초를 섭취하시면 큰 도움이 됨.
*유방종기, 암 부위에 마늘처럼 천년초를 찢어서 환부에 붙이면 효과가 뛰어남.

목포시내산교회

본사 대표 방철성·조경숙
(목포시내산교회 안수집사·권사 부부)
010-2731-5594, 010-9884-5594

계좌번호 기입 010-9884-5594(조경숙) 농협 176112-51-020809(조경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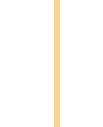
본사 대표 방철성·조경숙
(목포시내산교회 안수집사·권사 부부)
010-2731-5594, 010-9884-5594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흥사회

대표고문	교단총회장	지도고문	지도고문	회장	상임부회장	부회장	부회장	부회장	상임총무
									
조용목 목사 정책위원장	신재영 목사 총회장	정부용 목사 대림별영교회	엄기설 목사 은혜와천안교회	김기진 목사 제천순복음영문교회	서정복 목사 남원중앙교회	최정식 목사 순복음복원교회	김바울 목사 순복음진리교회	김건수 목사 제주한미교회	오세준 목사 순복음침중교회

※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흥사회에서는 교단산하 개교회 및 도시, 농·어촌, 산간벽지, 교회들을 대상으로 자비량부흥성회를 개최하고 있으나 부흥과 성장을 위해 부흥회를 열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여러 가지 사정상 망설이고 계시는 교회는 부흥사회로 연락주시면 부흥사회에서 **완전 자비량**으로 부흥회를 인도해 드립니다.

2021년도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흥사회 임·회원 명단

대표고문	증경총회장	증경총회장	증경총회장	증경총회장	증경총회장	증경총회장	증경총회장	증경총회장	증경총회장	증경총회장	증경총회장	직전총회장	총회장	지도고문	지도고문	증경회장	회장	상임부회장
																		
조용목 목사 (은혜와천안교회)	김상용 목사 (성주중앙순복음교회)	유봉수 목사 (은혜와천안교회)	진동용 목사 (세사랑교회)	김용택 목사 (영동제일교회)	임종달 목사 (진주은혜와천안교회)	최광택 목사 (일신순복음교회)	이창제 목사 (진주제일교회)	김인규 목사 (은혜와천안교회)	김인안 목사 (성신교회)	김양인 목사 (목양제일교회)	임홍제 목사 (신정리순복음교회)	신재영 목사 (새길교회)	신재영 목사 (새길교회)	정부용 목사 (대림별영교회)	엄기설 목사 (은혜와천안교회)	김희태 목사 (간현교회)	김기진 목사 (제천순복음영문교회)	서정복 목사 (남원중앙교회)
부회장	부회장	부회장	상임위원	상임위원	상임위원	상임위원	상임위원	상임위원	상임위원	상임위원	상임위원	상임총무	상임총무	실무총무	실무총무	실무총무	실무총무	실무총무
																		
최정식 목사 (순복음복원교회)	김바울 목사 (순복음진리교회)	김건수 목사 (제주한미교회)	임영광 목사 (연천순복음중앙교회)	오승욱 목사 (천안서복교회)	황용운 목사 (은혜와천안교회)	김병목 목사 (금산순복음교회)	정석현 목사 (평강교회)	백영자 목사 (능동순복음교회)	조병희 목사 (기정순복음교회)	김종연 목사 (의정부순복음교회)	오세준 목사 (순복음침중교회)	조은혜 목사 (순복음빛교회)	정광호 목사 (동문순복음교회)	윤혜영 목사 (순복음주천미교회)	조선남 목사 (대림별영교회)	김병호 목사 (순복음영문교회)	박홍달 목사 (오성사당교회)	박홍달 목사 (오성사당교회)
실무총무	실무총무	실무총무	실무총무	서기	재무	감사	정회원	정회원	정회원	정회원	정회원	정회원	정회원	정회원	정회원	정회원	정회원	정회원
																		
성기찬 목사 (동문순복음교회)	김남수 목사 (범문교회)	김연욱 목사 (영복현교회)	김병수 목사 (순복음영문교회)	임형순 목사 (순복음아연교회)	조건수 목사 (순복음은혜교회)	최남성 목사 (동경순복음교회)	윤성수 목사 (진주은혜교회)	정환무 목사 (순복음빛교회)	권선 목사 (순복음아연교회)	이희숙 목사 (진주순복음우리교회)	홍현자 목사 (시랑과평화교회)	최승수 목사 (순복음스미교회)	조창민 목사 (순복음영문교회)	배환 목사 (순복음원교회)	유보 목사 (소망농아교회)	우광덕 목사 (신원목자교회)	기호선 목사 (리신순복음교회)	기호선 목사 (리신순복음교회)
정회원	정회원																	
																		
정예서 목사 (예수영기교회)	이형은 목사 (은혜교회)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흥사회

문의 | 회장 김기진 목사 HP : 010-4112-9313
상임총무 오세준 목사 HP : 010-5041-3411



기독교영신상조(기독교장례전문) 후불제 (주)안양장례식장 경영

홈페이지 : www.영신상조.kr

30년을 믿음 안에서 장례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온 기독교영신상조는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최저의 비용, 최고의 서비스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품 내역 45인승 고급버스, VIP리무진, 영정꽃 선택, 장례상품 일체, 전문장례지도사, 상례도우미
총괄전문의 < 1호 270만원 2호 370만원 3호 470만원은 가족들의 선택임 >



▲ 생화사진틀(선택형)



▲ 45인승 버스



▲ 최고급 리무진



▲ 근조기



총괄경영주
박인안 장로

콜전화 : 031)444-5566 / 031)386-5566(011-896-7100)

<최신추모관 특별혜택>

2021년 한국사회 희망을 바라본다, 살롬나비 논평

한국사회 세대 및 계층 간 갈등을 봉합하고, 생명의 가치와 선(善)의 실천을 위해 노력하자

새롭게 맞이하는 2021년 한국사회를 향한 희망을 피력하고자 한다. 지난 한 해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던 우리 사회 구성원들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위로가 가득하기를 바란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모든 사람들이 경제적 및 심적 타격을 입었다. 발생 1년만에 1억명 확진이 일박한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에서 전 세계 인류는 위기상황을 모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다. 무엇보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 의료선진 국가들이 연구에 몰두하여 마침내 하이저,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보급하고 있는 상황이다.

살롬나비는 새해 2021년에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한국 사회에서의 갈등과 경제적 위기 극복을 위한 우리 사회의 희망과 바람을 제안한다.

1. 우리들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의 힘을 더욱 발휘해야 할 것이다.

지난 한해 전 세계를 비롯해서 우리 사회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삶의 파멸함을 경험했다. 지역별 자들을 비롯해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더 이상 출입이 불가능할 정도로 경제적 타격이 심했다. 하지만 이 힘든 시기에 우리는 과거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이 위기를 극복해 가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는 지난 1997년 IMF 외환 위기를 겪었다. 당시 경제적 위기는 물론 대량 실직 사태가 발생되었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금모으기 운동을 시작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데 큰 힘을 내었다. 원조를 받았던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나라가 된 국가의 자력은 당시 위기를 극복하는 데 큰 힘이 되었다. 결국 우리 국민들은 힘을 모아 다시한번 위기에서 강한 나라의 면모를 전 세계에 보여주면서 외환 위기를 잘 극복하고 지금은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2. 우리는 “협력하여 선을 이루라”는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선(善)의 실천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우리 사회에서는 서로 다른 차이나 가치관으로 인해 갈등이 빈번히 발생된다. 세대 간의 갈등, 지역 간의 갈등, 이념과 생각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갈등의 양상 등 다양한 이유에서 시작된 갈등의 요소들이 산적해 있다. 우리 사회는 국민 소수 3관봉에 도달했으나 ‘다름’의 가치를 인정하기에는 아직 여유가 없어 보인다. 오히려 나의 기준이나 내가 속한 공동체의 가치관과 다를 경우, 서로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기에 앞서 비판을 앞세우는 경향이 있다.

우리 사회는 지금 자본주의와 생명 경시의 풍조로 인해 ‘가장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2021년 우리 사회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야 할 것

다. 기존의 것과 새로운 것의 갈등 사이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궁극적 선’이다. 성경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협력하여 선을 이루라”고 말한다.

3. 대통령은 세대 및 계층 간의 갈등을 봉합하고, 화합과 용서의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화해의 제스처로서 우리는 협력과 양보로 선을 이루는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임기 1년 4개월을 앞둔 대통령이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하여 “이제는 사면을 논할 때가 아니다”고 사회각층과 여당 대표가 제의한 화합의 제의에 화답하지 아니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지난 4년동안의 적폐 청산은 서로를 헐뜯고 무너뜨리고 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만들어 왔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백악관을 떠나면서 후임 트럼프에게 다음 편지를 남겼다: “우리는 이 집무실을 잠시 거쳐 가는 사람들이다. 법치와 권력분립, 평등과 자유, 민주주의 수호자가 돼달라.” 대한민국 대통령도 미국 대통령이 후임에게 당부하는 말을 경청하고 남은 재임기간 실행해줄 것 당부하고 싶다.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고 함께 사회 건설로 나아가는 통합과 화합의 정치가 필요하다. 프랑스 비시 정부 시절 나치 부역자 청산의 모범 사례가 있었다. 하지만 그 나라에서도 실제로 벌어진 것은 내 편 배주기와 내 편 처단이었다. 전후 프랑스에 불타던 천 청산의 광기를 종단시킨 주인공은 프랑스 국민이었다. 프랑스 시민들은 적폐 물이에 열중하던 공산당과 사회당에 사실상의 선거 패배를 안김으로서 9년에 걸친 칼춤을 찾아들게 했다.

남아공 만델라는 반아파르트헤이트(흑백분리 반대) 운동을 전개하다가 투옥되어 27년을 감옥에서 지냈다. 1993년 만델라는 석방됐고, 1994년 남아공 최초의 자유롭고 민주적인 절차에 의한 평등 선거 실시로 최초의 흑인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세계인권운동의 상징이 된 만델라 대통령은 백인에 대한 정치적 보복을 하지 않고 ‘진실과 화해위원회’를 설치하여 7,112건의 사면 요청과 84,921건의 사면을 처리하여, 과거사를 청산하고 흑백갈등이 없는 국가를 세우기 위해 노력했다. 남아공의 백인 소수의 통치하에서 수세기 동안 엄청난 억압과 고통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수가 없는 나라를 주장했던 만델라 대통령은 분노와 한을 품은 사람들에게 국민통합과 국가 미래 역사에 정적적 실천을 보여주었다. 남아공의 만델라의 용서와 화해의 정치가 우리 사회에 필요하다. 예수님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라고 했다. 이것이 진정한 ‘용서와 화해의 아이콘’일 것이다.

4. 사회 구성원들은 집단 이기주의를 버리고 공동체의 덕을 지향해야 한다.

한국 사회는 집단 이기주의로 인해 몸살을 앓아왔다. 소위 남비(NIMBY)현상으로 인해 우리는 ‘내가 속에 있는 집단’만 생각하는 집단이기주의에 매몰되어 있었다. 서로 다른 공동체에 대한 배려와 보살핌은 상실된 채, 자신이 속한 공동체만 잘되면 된다는 식의 공동체적 이기주의에 함몰되어 있다. ‘내 뒷 마당은 결코 안된다’라는 이기주의를 과감히 버리고 공동체의 덕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공동체의 덕을 우리는 배려와 양보의 윤리로 요약할 수 있다. 배려와 양보는 현대 사회 윤리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들이다. 과거 전통적 윤리에서는 우리는 ‘의무감’ 또는 법칙에 따른 삶을 사는데 우선순위를 두었다. 하지만 현대 사회의 윤리는 단순한 의무감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의 인간성에 초점을 둔다. 오늘날 우리는 모두가 ‘나는 성숙한 윤리적 행위를 하는 사람’으로 이어지는 휴머니즘의 가치를 실현해야 할 것이다. 개개인 모두가 성숙한 시민의식과 휴머니즘에 기초한 행동을 할 때 사회 전체는 공동체의 덕을 지향할 수 있을 것이다.

5. 다음 세대를 위한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제시할 수 있는 사회적 풍토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심각하게 고민되는 주제 가운데 하나는 청년실업이다. 오는 사회구조는 그들의 꿈을 빼앗아가는 흐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현재 많은 청년들이 꿈과 희망을 접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젊은이들에게 꿈을 빼앗아가는 사회적 구조들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우리 사회는 청년들에게 꿈과 비전을 심어주어야 한다. 그들은 미래 세대를 이끌어 갈 주역들이다. 그들이 사회를 이끌어 갈 수 있는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은 그들의 미래를 위해 응원해야 할 것이다.

우리 한국에서는 근대화의 지도자 도산(島山) 안창호(1878-1938)는 우리 청년들에게 더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낙망은 청년의 죽음이고, 청년이 죽으면 민족이 죽는다.” “청년이 다짐해야 할 2가지 과제가 있다. 첫째, 속이지 말자. 둘째, 놀지 말자. 나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 청년은 스스로 생각할 때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다.” “우리 가운데 인물이 없는 것은, 인물이 되려고 마음먹고 힘쓰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인물이 없다고 한탄하는 그 사람이 인물이 될 공부를 하지 않는가. 그대는 나라를 사랑하는가. 그렇다면 먼저 그대가 간절한 인격자가 되라.” 한국 사회와 교회는 이러한 근대화 지도자들의 위대한 사상을 이어받아 실천 모범을 보여주어 오늘 우리 시대의 청년들이 희망과 꿈을 가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6. 한국교회는 사회의 공공 가치를 만들어 가는데 참여해야 하고, 공동체의 미덕을 제사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실천해야 할 것이다.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의 구성원이자 동시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예수님은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교훈을 남겼다. 우리는 그 동안 ‘네 이웃의 아픔’에 대해 얼마나 생각하고 그들이 아플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했는지 다시금 성찰의 시간이 필요하다.

성경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온다. 우리는 이웃에 대한 배려와 보살핌에 대해 성찰의 시간을 필요로 해야 한다. 예수는 우리에게 “누가 네 이웃인가?”라고 묻고 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 사회 곳곳에서 이웃의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가 들린다. 역사적 기독교회는 사회적 재난에서 도피하지 않고 희생적으로 저들에게 찾아가 사랑을 베풀고 저들의 피난처의 역할을 하여왔다. 한국 교회는 이들의 소리를 경청하고 사회적 자유의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 곁에는 따뜻한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 이웃들이 있다. 2021년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주위를 돌아보고 그들의 소리에 응답하고 기도해야 할 것이다.

7. 한국교회는 대면예배나 비대면예배를 둘 다 필요한 예배의 중요한 방식으로 수용하여 현장예배성도의 교제 위한 대면예배와 사회적 공감생방역을 위한 온라인예배를 충족하도록 해야 한다.

한국교회는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 정부의 코로나 피시즘에 저항하면서도 국민들의 생명을 중요시 하고 사회적 공공성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최대한 정부 방역지침에 협력하여 왔다.

방역 당국이 1월 18일부터 교회에 대해 주일(일요일) 정규예배만 수도권의 경우 좌석수의 10% 나머지 지역은 20% 내 대면예배를 허용하기로 했다. 2021년 1월 넷째 주일인 24일 전국 교회는 새해 들어 처음으로 성도들이 참석할 가운데 주일 대면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이 조치는 교회편에서 볼 때 만족스럽지 못한 미흡한 조치이긴 하지만 사회적으로 덕을 세우기 위해 받아들이기 수밖에 없다. 방역수칙을 거부하며 대면예배를 고수하고 있는 교회에 대해서 예배 자유를 지켜야 한다는 복음적 총정에선 충분히 공감한다. 그럼에도 감염병 상황에서 공교회와 방역지침을 거부함으로 일반 시민들의 우려와 사회적 파장을 확산시켜 교회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한 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 한국교회는 복음 전파를 위하여 사회적 감수성과 공감을 보여주어야 한다. 바울이 기졌던 약함으로 강해지는 신앙이 이럴 때 필요하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고통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 때에 강함이라”(고후 12:10) 이러한 약함을 자랑하게 될 때 개신교 단체들은 서로를 존중하고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단합된 의사를 정부에 겸허한 태도로 건의할 수도 있다.

정부의 사책이 미흡할지라도 교회는 정부를 적(敵)으로 간주해서는 안된다. 최대한 인내를 갖고 공동선을 이루도록 힘쓰야 한다. 이것은 한국교회의 사회적 감수성, 공감과 신뢰성을 각인시키는 중요한 자산(資產)이 될 수 있다. 보수와 진보 진영 교회 연합체가 이러한 겸허한 태도로 하나의 창구가 되어 정부를 설득하여 대면예배를 위한 최대한의 허용을 받아 낼 수도 있을 것이다.

2021년 1월 25일
살롬을 꿈꾸는 나비행동

신간 안내

페이지 처치 – 구겨진 종이에도 최고의 이야기를 쓰시는 하나님



삶은 책이다. 그책의 저자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났면서 그 첫 페이지를 펴시고 이야기를 쓰신다. 아름답고 풍성한 이야기다.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모두 하나님나라의 이야기다. 하나님나라에서는 ‘좋은’의 절대적 기준이 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어떤 삶을 살고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좋은 것을 기졌든, 나쁜 것을 기졌든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삶의 주인공을 잊은 채 내가 펜을 들고서 할 때 문제가 생긴다. 인생의 주인을 ‘나’라고 여기고, 살고 싶은 대로 살려고 한다. 하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삶의 저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저자는 1페이지를 쓰면서 100페이지의 이야기를 알고 있다.

저자 : 신재웅 | 출판사 : 규장 | 발행일 : 2021-01-11 | (135*210)mm 304p | 판매가 : 15,000원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많은 사람들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인도를 어떤 특정한 삶의 조건에서만 필요한 것처럼 여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자신이 처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 선택을 돕는 수단 정도로 여기며 그 방법을 알아내고자 몰두한다. 그러나 저자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아내는 방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 백성 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분 자체라고 강조하고 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목자로 계신다는 사실 자체 말이다. 이 책에서 저자는 그간 교회 안에 퍼져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다양한 오해들을 불식시키고 성경이 진정으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독자들을 제대로 안내하고 있다. 저자 : 박순옥 | 출판사 : 생명의말씀사

발행일 : 2021-01-22 216p | 판매가 : 12,000원

하이패밀리, 아동학대예방 위한 부모 분노조절 10개 수칙

부모는 최선의 안전지대여야 한다. 그런데 부모가 최악의 위험지대였다. 목회자 자녀도 예외가 아니었다. 시스템도 작동하지 않았다. 분명 법과 시스템을 재검토해야 한다. 그러면 사회안전망만 복귀하면 다 되는가. 기해 당사자인 부모는 가정 내의 은밀한 학대가 가정 밖으로 노출될 즈음 자녀는 이미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되어 있다. 대책만큼이나 예방은 더 중요하다.

1차 양육책임자인 부모들의 안전성을 재검토해야 한다. 학대, 폭력, 살인 배후에 분노가 있다. 분노를 폭발하는 부모의 몸은 직접적인 살인무기다. 위험하다. 분노유발요인들은 언제나 있다. 그러나 분노를 휘두를 것인지, 분노에 의해 휘둘릴 것인지 선택은 부모 자신에게 있다. 부모들이 자신의 분노를 조절할 수 없다면, 제 2의 정인이는 이미 예고돼 있다. 1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엡 6:4)는 엄중한 경고 앞에 우리 모두 서야한다.

다음은 신체심리학자이자 이모션코칭(모션으로 이모션을 코칭하다) 전문가인 김향숙 하이패밀리 공동대표가 제안하는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부모 분노조절 10개 수칙’이다.

1. 분노에 분노하라
분노는 내 안에 살고 있는 괴물이다. 약하다. 내가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면 분노가 나를 조절한다. 안에서 폭발하면 자신을 죽이는 자살이 되고, 밖으로 폭발하면 폭력이 되어 자녀를 죽이는 살인이 된다. 이 무시무시한 실체를 똑똑히 보라. 부모가 되기 전에 먼저 분노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

2. 방만한 분노폭발은 없다
‘맘을 안 먹어서’ ‘정미안 들어서’ ‘육아스트레스

때문에’ ‘맘을 만들어서’ 등 화를 낼 이유는 언제나 널려 있다. 정당화는 분노폭발의 지름길이다. 인간은 건드리면 터지는 자동방사시스템이 아니다. 분노는 선택이다. 선천적 장애가 아니라 후천적 습관이다. 건드려도 터지지 않을 수 있는 안전핀을 장착해야 한다.

3. 분노수위를 조절한다
저수지가 홍수로 인해 넘치기 전에 수문을 열어 수위를 조절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부모의 마음은 분노로 홍수상태가 돼 흘러 넘치기 전에 흘러 보내 수위를 조절해야 한다. 말로 제대로 표현하지 않으면 몸으로 한꺼번에 폭발한다. 폭발하기 전에 표현해서 처리한다.

4. 분노의 뇌관을 제거한다
무감각, 무인식, 무감정은 3대 분노폭발원이다. 관찰, 인식, 공감은 3대 분노예방책이다. 자녀들은 몸으로 통증신호를 보낸다. 안 먹고 못 자고 못 싸고, 날카롭게 운다. 부모라면 보고, 알아차리고 함께 느껴야 한다. 같이 이해할 줄 아는 공감부모에게 분노는 자리잡을 틈이 없다.

5. 자녀는 생명이다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다. 장난감도 아니다. 복제인간도 아니다. 때문에 도구나 수단이 될 수 없다. 한 생명이 다른 생명의 필요를 위해 존재할 수 없다. 이 생명의 존엄성 앞에 화가 난다고 내 멋대로 내팽개치고, 내 마음대로 휘둘러도 되는 자녀는 없다.

6. 생각의 틀을 넓힌다
부모의 자기중심적인 유아기적 사고는 분노를 일으키는 주범이다. 태안처럼 자녀가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줄 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내 맘을 듣

지 않으면, 내 뜻대로 하지 않으면, 내 멋대로 화를 낸다. 자녀 편에서 생각하는 역지사지(易地思之)를 날마다 연습해야 한다.

7. 분노일지를 작성한다
분노의 실체를 아는 만큼 조절할 수 있다. 분노일지는 매일 발생하는 분노의 감정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기록하는 것이다. 점선 윗기 높이처럼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는 수많은 점들을 하나하나 연결해서 분석하다 보면 명확한 분노패턴이 드러난다.

8. 공간을 분리한다
활동 타오르는 분노가 퍼부어지려는 위급한 순간의 응급처치법은 분리(seperating)다. 화생방 훈련처럼 분노공습정보사신이 울리면 일단 피해야 한다. 분리시킨후고 받기, 공간분리하기, 빈 공간 찾아가기 순으로 평상시 연습해 둔다. 몸으로 축적된 경험은 위급한 순간에 자질로 작동한다.

9. 숨을 쉰다
분노는 마음에 발생한 화재다. 재빨리 불을 꺼야 한다. 호흡은 마음에 난 불을 끄는 소화기다. 불타오르는 분노의 에너지 공급을 차단하기 위한 전원스위치다. 알고 가쁘고, 빠르게, 거친 호흡은 기름을 붙는 격이다. 깊고, 느리고, 부드러운 호흡을 하면서 숫자를 센다.

10. 대체에너지를 사용한다
분노는 순간 에너지다 사용하면 사라지고 없다. 자녀가 없는 사물이나 자연에서 걸기, 뛰기, 소리치기, 두드리기 등 몸을 사용해서 빠른 속도로 분노 에너지를 소모한다. 평상시 좋아하는 글쓰기, 춤추기, 그리기, 찰기, 악기 연주하기 등의 예술 활동을 통한 전환도 큰 도움이 된다.

한파를 녹이는 훈훈한 나눔 이어져

최수종·하희라 부부 코로나19 확산 예방 손소독제 기부

최수종·하희라 부부는 지난해 2월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대구·경북지역과 전국의 지역아동센터 및 저소득층 아동에게 손소독제 1만개를 기부한 바 있다.

하트-하트재단(이사장 오지철)의 진선대사로 활동하고 있는 최수종·하희라 부부는 화장품 전문브랜드 제이원코스메틱과 함께 전국의 저소득층 아동과 소외계층을 위해, 판매가액 2억원 상당의 손소독제 2만개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최수종·하희라 부부는 “코로나19에 걸린 한파로 더욱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을 아이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프다”며, “소외아동들의 건강을 지키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선물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다양한 봉사활동 참여와 기부로 나눔을 꾸준히 이어오며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최수종, 하희라 부부는 지난 2007년 하트-하트재단의 진선대사로 위촉된 이후 아시



아, 아프리카 등 긴급재난과 가난으로 도움이 필요한 지역을 위한 집 짓기, 의료봉사팀 지원, 급식봉사활동에 참여했고, 국내에서는 장애와 질병으로 소외된 아동들을 위하여 음반수익금 및 광고 모델료 기부, 목소리 기부 등 다양한 후원과 봉사활동을 지속해 오고 있다.

비대면 시대 신앙관리! 성경1독에 도전!

CTS 제3회 대한민국 온라인 성경필사대회로 함께해요

CTS기독교TV(회장 감경철 ‘이하 CTS’)가 <제3회 대한민국 온라인 성경필사대회>를 1월 7일부터 3월 31일까지 약 3개월간 진행한다.

장기간 계속되는 코로나19로 교회 출석이 어려워지며 무너져가는 신앙생활을 온라인 성경필사로 회복하자는 취지로 개최되는 본 대회는 CTS홈페이지 내 “온라인 성경필사” 시스템을 통해 진행되며 성도들은 간편하게 로그인을 통해 손쉽게 타지로 성경을 필사할 수 있다.

성도들의 성경1독 필사를 장려하기 위해 1독을 완료한 성도들에게 ▲은혜상(1독 완료자)을 증정할 예정이며 그 외 ▲성경필사왕(가장 많이 필사한 1명) ▲말씀상(두번째로 많이 필사한 1명) 수상자를 선발하여 상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본 대회 담당자는 “코로나시대로 신앙생활을 유



지하기 힘든 요즘 성경필사를 통해 신앙이 굳건해지고 성경을 더 가까이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본 대회는 1차로 1월 7일부터 3월 31일까지 진

행되며 2021년 분기별로 나누어 진행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CTS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문의 : 02-6333-1005)

월드비전, 헤리티지자산운용 송현석 대표

‘밥피어스아너 클럽’ 회원 위촉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회장 조명환)이 최근 헤리티지자산운용 송현석 대표를 ‘밥피어스아너 클럽’ 회원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밥피어스아너 클럽(Bop Pierce Honor Club)은 월드비전 청량자인 미국인 선교사 밥피어스의 이름을 딴 고액 후원자 모임으로 1억원 이상 기부 후원자에게 정식 회원으로 위촉하고 후원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 활발한 기부 문화정착을 독려하는 기부 모임이다.

헤리티지자산운용은 2018년부터 월드비전 국내사업 후원에 동참하고 있다. 2018년 국내사업 후원금 1천 5백 만원을 시작으로 2019년 상반기 국내사업 후원금 1천만 원, 하반기 위기아동지원 사업 후원금 1억원을 전달했다. 후원금을 통해 작년 위기아동 14명이 직접 혜택을 받았다.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해 위기아동지원 사업에 1억 5천만원을 후원했다.

이 밖에도 한해 당기 순이익의 10%를 저소득층이나 비영리법인 등을 지원한다는 회사 정관에 따라 복수 비영리단체에 기부금 전달은 물론 보육원에 직접 방문해 지킴을 앞둔 청소년 50명에게 각각 50만원씩 지원하는 등 지난해에만 총 10억원 상당을 기부하며 나눔을 실천해오고 있다.

헤리티지자산운용 송현석 대표는 “기업이 좋은 경영 성과를 내는 만큼 사회적 책임까지 다하자는 게 회사의 철학”이라며 “앞으로도 밥피어스아너 클럽 회원으로서 소외된 이웃과 아동들을 위해 다양한 기부 활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월드비전 조명환 회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 나눔의 철학과 기업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책임 의식이 더욱 빛이 난다”며 “올 한해 주신 후원금으로 국내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 꿈을 잃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사업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가족세트전도

박영수 목사 // 평내순복음교회, 가족세트전도 아카데미 원장

하늘 꽃대를 향해!!!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부산 예사랑교회 박성란 집사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만민을 통해 이루어짐을 다시 한번 새삼 깨닫고 발견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사랑교회 2021년 신년 부흥성회에 박영수牧사를 보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가족세트전도를 통해 많은 은혜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전도에 대한 마음은 있었지만 선풍 실천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번에 가족세트전도를 통해 매주 월요일 박영수 목사가 교회에 와서 능력전도 할때 함께 동참하며 훈련했습니다.

예배도 전도도 마음껏 할 수 없는 코로나 시대에 방역을 철저히 하고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전도할 수 있다는게 놀랍고 감사했습니다.

내성적인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걱정도 되었지만 주님께서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미 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하신 말씀을 믿고 전도할 수 있는 능력 또한 반복 훈련을 통해 담대함을 갖고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단 12:3)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올 한해는 영혼 구원의 사명감을 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나 가족세트전도를 통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 올립니다. 오직 하늘 꽃대를 향해 달려가게 하옵소서!

부산예사랑교회 박성란 집사

동영상: <http://blog.naver.com/bys2573>
가족세트전도 아카데미 학장 박영수 목사
031692-1691, 010)3730-2573
평내순복음교회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121-10

신이 내린 바다 천사의 섬

신안군 비금도에서 생산되는 천일염으로 만든 소금물

구강건강의 파수꾼 옥금수(소금물)

옥금수의 효능

천해의 청정바다인 신안군 비금도에서 생산되는 소금으로 만든 옥금수에는 미네랄이 풍부하고 무기질과 인체에 이로운 나트륨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예로부터 소금은 변을 잘 통하게 해주는 성질과 몸을 따뜻하게 하고 산성화된 몸의 균형을 맞춰주며, 좋은 소금을 잘 먹으면 장수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금이란 말의 금은 작은 금과 같이 귀한 물품으로 알려져 있으며, 소금물로 가글과 양치를 하면 잇몸의 염증을 가라 앉히고 구강이 건강해지며 세균으로 가득한 혀와 입 안의 위생 및 장을 이롭게 합니다.

사용법 및 효능

*소금물 1/4컵을 따라 칫솔에 묻혀가며 치아에 소금물이 골고루 묻혀지도록 골고루 닦아 줍니다.
*이를 반복하며 최소 5회 이상 치아를 골고루 닦아주면 치아 표면 미백과 함께 잇몸 질환까지도 사라지는 광범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치아를 닦은 후 가글하실 때는 입 안 골고루 닿을 수 있도록 여러번 반복해 주시면 상대방 보호, 감기에 방 효과까지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소금물 양치의 주요 효능

1.충치 예방 2.풍치 예방 3.잇몸 질환 4.혀 살균 5.편도 보호 6.감기예방 7.혀 기침 예방(소금물 양치, 가글의 효능)

365 치아 건강비전 옥금수

충치·풍치·잇몸질환 옥금수(소금물)로!!

500ml 30개들이 33,000원

옥금수(소금물) 판매점을 모집합니다

www.encyber.com

상담 문의 **010-3000-7602** 계좌번호 신한은행 110-357-991640(김옥태)

초대시

전혜수 // 은혜와 진리 교회 권사

더 최고인 것이 무엇이랴!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만드신 것보다
더 최고인 것이 무엇이랴~~

사망으로 가는 자를 구원하여
천국백성 되게 하신 것보다
더 최고인 것이 무엇이랴~~

우주만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신 것보다
더 최고인 것이 무엇이랴~~

주님 목숨 바쳐 내 생명 구원하신
그 큰 사랑 받았으니 이보다
더 최고인 것이 무엇이랴

하늘문 여시고 신음하는 소리까지도
들으시며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것보다
더 최고인 것이 무엇이랴~~

나그네 인생길에 목자 되시어
여호와이레와 여호와살롬과
여호와닛사가 되어주시니 이보다
더 최고인 것이 무엇이랴~~

선한 것 하나도 없는 나를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 자녀 되어 천국 길 가게 하시니
이보다 더 최고인 것이 무엇이랴~~

먼지로 끝나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 합니다.



신명기 26:1-11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구원받은 감격 밀려와 다윗처럼 그렇게..
주님을 찬양한다

세기총 2021년 신년하례회, 쪽방촌 어르신 섬길 것

시단법인 세계한국인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조일래 목사, 사무총장 신광수 목사, 이하 세기총)는 지난 1월 20일(수) 서울 마포구에 소재한 (사)해돋는마을 노인대학, 신생명나무교회(정현일 목

사)에서 세기총 임원과 회원 및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소외된 독거노인과 쪽방촌 어르신을 섬기는 '세기총 이웃사랑 밤사랑 전달식'을 하며 신년하례회를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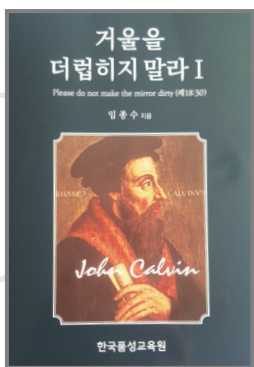
매년 연말연시를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이주민 희망봉사단과 함께 어려운 이웃을 섬기면서 지낸 세기총은 올해에도 신년하례회를 어려운 이웃을 섬기면서 뜻 있는 시작을 하게 됐다.

이번 행사는 방한용품과 식사 제공을 위해 소강석 목사(새에덴교회)와 인천 수정교회(이정준 목사) 및 세기총 임원들의 후원으로 진행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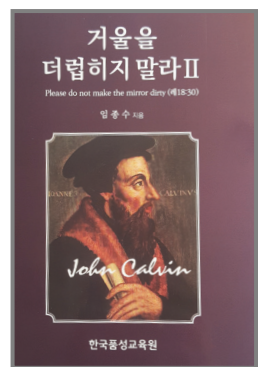
세기총 대표회장 조일래 목사는 "코로나19의 상황에서 모두가 어렵고 힘들지만 어떤 일이든지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명령대로 어려운 이웃을 먼저 생각하고 섬긴다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될 것"이라며 "이런 섬김을 통해 사회에는 더 크고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하게 열매 맺기를 소망한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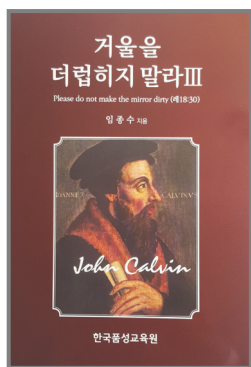
믿음은 구원으로 인도하고 품성은 행복과 성공으로 인도한다



제1권 품성과 비슷한 덕목인 성격, 덕성, 인격, 개성을 바울은 어떻게 개발하였는가? 이조 500년 유교와 고려 500년 불교가 만들어낸 윤리 도덕이 무엇인가? 기독교의 윤리부분 7가지와 자기 계발의 부분에 필요한 10가지를 논하였다.



제2권 대인관계 부문 10가지와 신사적인 성도가 되기 위한 품성 4가지와 문제해결을 하기 위한 품성과 더 좋은 것과 가장 좋은 품성이 무엇인가를 논하였다.



제3권 부정적인 품성 6가지와 영적전쟁의 품성 10가지와 신자가 물리쳐야 할 세력들 즉 점과 굿, 자살, 인종차별과 이단척결을 논하였고, 올바른 생활을 위한 실천분야 5가지를 논하였다. 만약 이 책을 매일 한 과씩 훈련한다면 훌륭한 신자가 될 것이다. 곧 새 언약과 품성과 자유의 대 현장 두 권이 출판 될 것이다.

품성은 성공과 행복의 열쇠이다. 품성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올바른 일을 하고자 하는 내적 동기이다.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는 이유는 영적인 면만 강조하고 육체를 가진 인간의 삶에 대해서는 등한시하여 삶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철야 기도를 마치고 귀가하면서 남의 발에 고추를 따가는 생활이 그 대표적인 이야기이다. 그래서 저자가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영적훈련을 해야 하겠다는 마음으로 품성에 관한 책자를 7권 출판하였다. 최근에 출판된 '거울을 더럽히지 말라' 1,2,3권을 소개한다.

강의 안내

각 교회에서 시행되는 각종 중직자 세미나
각 지역에 거주하는 목회자들의 소 그룹

책 구입처

cslim4305@gmail.com 임종수 원장
재무담당 이미란 이사 010-8618-9982
계좌번호 농협 351-0771-1742-13
한국 품성교육원

사설

바르게 가기를 바란다

도전에 대한 응전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금세기 최고의 역사학자인 영국의 아놀드 토인비(A.Toynebee)는 도전과 응전의 원리를 설명했다. 즉 인간 사회의 문명과 역사의 발전은 자연의 도전에 대한 인간의 응전이라고 설명한 것이다.

인류사에는 수많은 문명들이 등장했지만 자연재해나 외세의 침략 같은 도전을 받지 않은 문명은 스스로 멸망해 버렸지만, 심각할 정도로 도전을 받았던 문명들은 지금까지 찬란하게 발전해오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 이치로 도전에 대한 응전의 저력을 갖추지 못한 민족, 국가는 자연 소멸되었다는 것이 토인비의 설명이다.

우리 한국은 주변의 강대국 사이에 끼어서 어떤 도전에 대해서 어떤 응전을 했을까? 수나라, 당나라, 몽고의 침입, 외국의 침입과 응전. 그리고 최근에는 북한의 도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응전을 하고 있을까? 북한의 김정일은 노동당 8차 대회 사업총화 보고에서 36차 레나 핵(物)을 언급하면서 '완전무결한 핵 방패를 구축했다'고 했다. 남한에게, 미국의 트럼프에게 비핵화를 하겠다는 말이 속임수였다는 것이 드러나는 순간이다.

김정일은 속임수에 남한과 미국의 트럼프가 놀아난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정일은 '최대의 주적인 미국을 제압하고 굴복시키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도 했다. 남한에 대해서는 '강력한 국방력에 의거해 조국 통일을 앞당기겠다'고 했다. 소름끼치는 말이다. 무력통일하겠다는 선언이다. 핵추진 잠수함, 극초음속 미사일, 다탄두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개발은 사실상 미국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것이라는 선언이다. 걸로만 미국을 향한 것이라고 했지 속내는 남한이라는 말이다. 이것이 현실이 되는 날이면 상상하기조차 힘든 상황이 되고 말 것이다. 그동안 김정일의 비핵화와 평화 의지가 확고하다고 줄기차게 3년 동안 국민들에게 외쳐온 정부의 외침은 허공에 뜬 백구가 되고 만 것이다.

가짜 비핵화와 가짜 평화, 이것이 김정일은 선언으로 드러난 이상 우리는 어떻게 응전을 해야 하는가? 김정일의 이런 선언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내놓은 멘트는 '우리의 남북 합의 이행 의지는 확고하다'고 했다. 북한의 김정일은 남북간의 모든 상황은 판문점회담이전으로 돌아갔다고 하는데도 남북 합의 이행 의지가 확고하다고 제정신일까? 폭파해도, 쏘 죽여 불살라도, 대화와 지원에

목을 매는 이유가 무엇일까? 뿐만 아니라 김정일은 가장 무서워하고 싫어하는 대북 전단지, 김여정이 금지법을 만들라고 하니까, 4시간 만에 응답하기를 '지금 준비중'이라고 대북전단지금지법은 전 세계 모두가 반대하고 있는 법인데 만들고야 말았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인권, 표현의 자유 침해국으로 낙인찍힐 수도 있는 위기를 맞았다. 이에 더해 한미연합훈련을 김정일과 의논해서 하겠다고 한다. 어디까지 이해해야 할지 도무지 알 수 없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월 20일 취임함으로써 미국 국내 정책은 물론 국제 질서도 크게 바뀌게 되었다. 취임사 3대 핵심 개념은 민주주의·동맹·통합이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과 내일의 도전을 해결하기 위해 동맹을 복구하고 다시 한 번 세계에 관여할 것'이라고 했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동맹을 거래 개념으로 접근하던 트럼프 전 대통령과는 정반대로 가치와 원칙을 중시하겠다는 선언이다. 또 최고의 전문가들을 기용함으로써 트럼프 식의 즉흥적 이벤트 스타일에 서 벗어나 충직한 실무 검토와 합리적으로 추진하는 방식을 택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대한민국은 한미동맹의 틀 안에 있을 때 중국에 대하여 강하게 나갈 수 있다. 중국에 저지세인 문재인 정부는 일본에 대하여는 지나친 대결 자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에는 친중사대주의, 일본에는 반일 종족주의라는 비상식적인 극단의 비외교적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일본은 자유민주국가이다. 과거의 군국주의는 아니다. 일본과는 친하게 가까이 지내고, 중국과는 종속관계가 아니라 대등한 상호주의로 나가야 한다.

코로나19 대응은 지난 1년간 나라를 혼돈과 위협에 빠뜨렸다. 교회에서만 확진자가 쏟아지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교회는 희생양이 되어버렸다. 버스나 기차, 백화점과 마트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들러거리지만 그곳들은 안전한 것인지 단 한 건도 확진자를 말하지 않는다. 버스, 기차, 백화점에는 완전히 무균상태의 음성 상태의 사람들만 다닌다는 것인지 참 알 수 없다. 질병감염예방법으로 교회를 폐쇄시키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바르게 가기를 바란다.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이 나라를 위하여, 국민들을 위하여, 위장자들을 위하여 선한 마음으로 권면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역사의 주권자 하나님께서 선히 이끌어주시기를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아야 할 것이다.

목양신문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1 / 재등록 서울 다-07857 주간

●편 집 고 문 : 정책위원장 조동목 목사

●발행 겸 편집인 : 편집국장 박한근 목사 ●인쇄인 : 배성환

●연락처 : 편집국 ▶ (02)2677-9935~6, 구독문의 ▶ (02)2677-9937
광고국 ▶ (02)2675-5183 FAX ▶ (0504)027-0897
웹하드 : ID-mok677 / PW-5277, e-mail mok2677@naver.com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2 다길 5

●본보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온라인계좌 : 국민은행 061701-04-128988 박한근

홈페이지 : www.ucts.or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2021학년도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신·편입생 모집

● 설립취지

본 예하성 사이버신학연구원은 사명은 있으나 지역적, 시간적 여건 등으로 출석 수업을 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한 신학과정입니다. 소명 의식을 가진 분이라면 누구나 언제든지 입학할 수 있으며 본인 스스로 온라인(인터넷)으로 교과목을 수강하여 이수학점을 취득함으로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1. 지원자격

학 과	수업연한	지원자격
신학과 (신입생)	3년 6학기 (140학점)	1. 만18세 이상인 성인 남녀 2. 소명 의식이 있는 자 3. 신앙경력 5년 이상인 자
신학과 (편입생)	2년 4학기	1.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2. 본 교단이 인정하는 타 신학교에서 편입하는 자 는 이수한 학점에 따라 학년 결정

2. 제출서류(각 1통)

- ① 입학원서(소정양식)
*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또는 전화 요청시 우편발송
- ② 최종학교 졸업 및 졸업 예정 증명서
- ③ 타 신학교 수료증 및 성적증명서-편입생
- ④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 ⑤ 신앙고백서(A4용지 2매 이내)
- ⑥ 반명함판 사진 2매(3개월 이내 촬영)

3. 전형안내

- ①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시
- ② 서류심사 및 면접 : 수시
- ③ 전형료 : 20,000원
계좌번호 : 국민은행 061737-04-005354(예금주 사이버신학연구원)

4. 접수방법

- ① 우편 또는 방문 접수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예하성 사이버신학연구원)

5. 특전 및 기타사항

- ① 졸업 후 전도사 임명자격 부여
- ② 총회목회대학원 입학자격 부여
- ③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교무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학상담 및 문의

교무처 : 02)2678-5181
e-mail : ucts5181@naver.com

-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시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무처 02)2678-5181

홈페이지 : www.ucts.or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목회대학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2021학년도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목회대학원 신입생 모집요강

● 설립취지

본 대학원은 사단법인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교단의 목회자를 양성하는 훈련기관으로써 교단 소속 사역자가 목사안수를 받기 위해서는 필수 본 대학원을 졸업하여야 한다.

● 교육목적

본 대학원은 정통 복음주의 기독교 신앙을 토대로, 제반 신학이론과 오순절 신학을 연구, 교수함으로써 점차 한국과 세계의 교회를 이끌어 갈 올바른 신학적 이해와 인성과 지성을 갖춘 영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한다.

● 원훈

- 말씀충만, 성령충만.
- 목양일념.
- 온 세상 만민에게 복음전파.

1. 모집학과 및 지원 자격

학 과	과정	수업연한	지원자격
목회학과	목회학 석사 (M.M/Master of Ministry)	3학차	● 본 교단 소속의 목사 또는 전도사 ● 본 교단 신학교 졸업자 ● 타 교단 신학교 졸업자(4년제) ● 타 교단 교역자로서 본 교무위원회 의 응시 허락을 받은 자

2. 전형 방법

서류 전형 및 면접

3. 전형일정

- ① 원서 교 부 : 수시
- ② 원서교부처 : 본 대학원 행정실 및 대학원 홈페이지
- ③ 원서 접 수 : 수시
- ④ 합격자발표 및 합격자 등록 기간 : 개별통보

4. 전형료

- ① 전형료 : 30,000원
- ② 계좌번호 : 국민은행 061737-04-005354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5. 제출서류

- 입학원서(본 대학원 소정양식) 1부
- 최종신학교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추천서(소정양식) 1부
- 반명함판 사진 1매
- 주민등록등본(2개월 내 발급분) 1부
- 가족관계증명서(혼인사실관계) 1부
- 목회자 소속, 재직 증명서 1부(해당자)

6. 특전 및 기타사항

- 본 대학원 졸업자는 졸업과 동시에 목회학 석사(Master of Ministry/교단 인정) 학위를 수여하며 교단 목사고시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 본 대학원 강의는 매주 월요일 홈페이지에 업로드 됨.
- 접수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윤리와 도덕 그리고 성품면에서 문제가 제기될 경우에는 합격발표 이후에도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 대학원 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대학원 홈페이지 www.ucts.org 에서 출력 작성 후 E-Mail, 혹은 우편으로 접수 가능.

7. 문의처 및 주소

- 문의처 : 02)2678-5181 FAX: 02-2632-0691
- 주 소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양평동5가 90-3) 사이버목회대학원 교학처 (우)07205
- 홈페이지 : www.ucts.org, e-mail : ucts5181@naver.com

-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시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무처 02)2678-5181